청년생활



8

1959

윈나에서 절찬을 받은 우리 나라 예술

윈나 축전에 참가한 우리 나라 젊은 예술인들은 17개의 금메달, 13개의 은메달, 7개의 동메달을 받았다.



금메달을 받은 《젓대독주》



금메달을 받은 《무

금메달을 받은 군무 《아박무》



청년들은 로력 전선에서 선봉 투사이다.

청년들은 계속하여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라! 혁명적 사상과 선진 기술로 자체를 무장하며 기술적 혁신과 새 기준량 창조의 발기자가 되라!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청년생활

차 례

8
(119)
1959

편집 위원 리 홍종 (주필)
전 성근 박 춘실 지 장린
김 상민 송 선경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1959년 8월 1일 인쇄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1959년 8월 10일 발행
(값 30 전 ㄱ—30502) 105, 000부 발행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천리마의 진군 속도를 더욱 높이자

우리 인민은 제 1차 5개년 계획을 공업 총생산액에서 완수한 승리자의 긍지와 기쁨 속에서 8. 15 해방 14주년을 기념한다. 뜻 깊은 이 민족적 명절에 제하여 우리들은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민과 청년들을 항상 승리와 행복에로 인도한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에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 또한 우리의 해방자이며 친근한 벗인 형제적 쏘련 인민과 그의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인 쏘련 공산당에 충심으로부터 감사를 드린다.

해방 후 14년간에 우리 나라에는 위대한 력사적 변혁들이 일어났다. 혁명 선배들이 래일의 희망으로 바라 보면서 피흘려 싸운 사회주의가 우리 나라에서 실현되였으며 인민 경제는 력사상 류례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하여 장구한 기간 세계 지도 우에 빛을 잃은 락후한 식민지 반봉건 사회였던 우리 나라는 동방에 우뚝 솟은 선진적 공업—농업국으로 전변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제 1차 5개년 계획은 2년 반이란 짧은 기간 내에 완수되였다.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이 완수되면 우리 나라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은 그 총생산액에서 전쟁전의 7배를 릉가하게 된다.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서는 이미 수리화가 대체로 완수되였으며 홍풍을 모르는 영원한 다수확 기지가 창설되였다.

공업과 농업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이 현저히 향상되였으며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달성되였다. 작년 11월에 실시된 중등 의무 교육제 실시에 뒤'이어 기술 의무 교육제 실시를 위한 준비 사업이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우리 인민이 달성한 이 위대한 승리는 우리 당의 정확한 로선과 정책의 승리이며 당 로선과 정책을 받들고 궐기한 우리 인민과 청년들의 창조적 로력 투쟁의 빛나는 열매이다. 또한 그것은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형제적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의 국제주의적 지지 및 원조와 결부되여 있다.

해방 후 우리 나라 청년들의 처지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2중 3중의 압박과 착취, 무권리와 몽매를 강요 당하던 그들은 사회주의 조국의 떳떳한 젊은 세대로 되였으며 지식 있고 기술 있는 문명한 청년으로 자랐다. 우리 나라 청년들은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황금 시대의 자유와 행복을 구가하고 있으며 그들의 전도는 무한히 광활하다.

우리 나라 청년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항상 어렵고 힘든 부문을 솔선 담당하여 빛나는 로력적 위훈을 세우고 있다. 그들은 해주—하성간 광궤 철도 공사와 지하리—평산 철도 부설 공사장에서, 랑림산맥의 준령과 강하를 정복하는 강계 청년 발전소 건설장에서 조선 청년의 혁명적 기개와 애국적 헌신성을 유감없이 과시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청년들은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자는 구호하에 전개되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광범히 참가하여 혁명적 고조를 견지하기 위한 투쟁에서 모범으로 되고 있다.

이것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에 대한 조선 청년들의 충성심과 열렬한 애국적 헌신성의 표현이며 당에 의하여 교양 육성된 우리 나라 청년들의 고상한 도덕적 면모의 발현이다.

우리는 오늘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섰다.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가 우리의 눈가까이에 보인다. 그 봉우리에 올라 서면 공산주의의 문어구가 가까운 지평선 우에 뚜렷이 바라다 보일 것이다.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 성과는 공화국 남반부 인민들과 청년들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여 주고 있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날을 앞당기고 있다. 남북 조선 인민의 통일된 력량 앞에 미제는 물러 가고야 말 것이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위업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우리 인민의 전망은 휘황 찬란하다. 이것을 하루 속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은 청년들의 역할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청년들은 로력 전선에서 선봉적 투사이다. 청년들은 계속하여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라! 혁명적 사상과 기술로 자체를 무장하며 기술적 혁신과 새 기준량 창조의 발기자가 되라!》고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호소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청년들에 대한 당의 두터운 신임과 높은 기대의 표시이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당의 두터운 신임과 호소에 보답하는 것 보다 더 영예로운 일은 없다. 청년들은 앞으로도 계속 수산 부문과 축산 부문을 비롯한 인민 경제 각 부문의 긴요하고 어려운 부문에 적극 진출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선진 돌격대가 될 것이다. 청년들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더욱 광범히 참가하며 자체의 기술 문화 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선진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기술적 혁신을 일으키며 새 기준량을 창조하는 투쟁에서 모범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빛나게 초과 완수할 것이다.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더 빨리 도달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자들의 사상에 달려 있다. 청년들은 당적 사상 체계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여 어떤 환경에서나 항상 당의 의지로 생각하고 행동하여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시켜야 한다. 청년들은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수호하며 일체 종파적 잔재와 가족주의, 지방주의 표현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청년들의 숭고한 공산주의적 의무이다. 청년들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직 지도된 항일 빨찌산의 사상 체계와 혁명 정신, 고상한 도덕적 품성을 깊이 학습하고 계승하여 그를 자기들의 실생활에 구현시켜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는 새 것과 낡은 것과의 투쟁이다. 청년들은 자본주의 사상 잔재로부터 출발하는 일체 보수적인 것, 소극적인 것, 개인주의적인 것들을 불살라 버리는 사상 투쟁의 앞장에 나서야 한다. 원쑤들은 간악하고 교활하다. 청년들은 항상 혁명적 경각성을 제고하고 질서와 규률을 확립하며 일체 부화 방탕한 현상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우리의 고귀한 사회주의 전취물들을 반석같이 수호하여야 한다.

쏘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 인민들과의 친선 단결은 우리 혁명 승리의 튼튼한 담보의 하나이다. 전체 청년들은 앞으로도 쏘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 인민들과 청년들과의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다.

당은 새로운 승리에로 우리들을 부른다. 전체 청년들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나가자!

불패의 친선

리 양섭

기차를 타고 오곡이 무르익는 사회주의 농촌의 전야를 달릴 때나, 키다룹하며 일떠선 공장과 주택들을 볼 때나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가장 친근한 벗인 형제적 쏘련 인민이 이 땅에 남긴 은공을 생각하군 한다. 더구나 1차 5개년 계획을 2년 반이란 짧은 기간 내에 완수한 커다란 자랑과 기쁨 속에서 8. 15 해방 14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그들에 대한 친선의 감정은 우리 인민과 청년들의 가슴마다에서 들끓고 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위대한 쏘베트 군대와 쏘련 인민의 불후의 업적들과 은공을 가슴 사무치게 회상하는 것이다.

《8. 15란 말은 나에게 생명이란 말과도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어제'날의 머슴의 아들이 오늘은 영웅이라니, 참으로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내 눈 앞엔 선히 떠오릅니다. 빚을 내라고 호통치던 지주놈의 표독스러운 얼굴이며 끝내 빚을 못 문 탓으로 하여 지주놈이 지른 불에 쓰러지던 청천강변의 우리 집 오막살이와 그 후 품팔이로 나선 아버지 손목에 이끌리워 신의주에 가서 소학교 《꼬즈까이》(소사)로 하루 스무시간씩 노예 로동을 강요당하던 일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쏘베트 군대가 왜놈들을 쳐물리친 때로부터 나는 자유롭고 행복한 새 조선의 청년으로 자라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니 나의 생일은 8. 15와 같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속도 절삭의 젊은 명수인 강 락수 영웅의 말이다. 그러나 이런 말은 비단 강 락수 영웅한테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 붉은 기'발이 머리 우에 휘날리는 우리 나라 방방곡곡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서 조쏘 친선의 고상한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강원도 은피'골 농업 협동 조합엔 인수란 청년이 있다. 그는 말한다. 《해방 후 우리 고향에도 쏘베트 군대가 주둔하였습니다. 그중엔 안드레이라는 공청원도 있었지요. 그는 자기가 공청원이라는 것을 무척 자랑하는 병사였습니다. 내가 쏘베트의 어린 혁명 투사인 빠블리끄 모로조브나 또 마뜨로쏘브 영웅과 돈바스의 탄부 쓰다하노브의 이름을 처음 안 것도 안드레이 병사한테서였습니다. 그는 자기도 그들처럼 훌륭한 쏘베트 인간으로 될 것을 희망한다고 노상 이야기하군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처음에 그 말의 뜻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못에 빠진 나를 그가 목숨 내걸고 구원하였을 때, 나는 비로소 쏘베트 인간이란 어떤 사람들이며 또 그가 왜 공청원이란 이름을 그처럼 귀중히 여기고 있었는지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장시일의 병원 생활 끝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안드레이 병사는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나는 그의 행동에서 모범을 배웠고 나도 그와 같은 청년이 되여야 하겠다고 깨달았습니다. 그 후 나는 이 길을 우리 당이 가리킨 우리 나라 농촌 경리 발전에서 찾았지요. 그리하여 나는 원산 고중을 졸업한 후 농촌에 진출하였습니다.…》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우리 나라엔 아름다운 전설처럼 울려오는 쏘련 인민의 은공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많다. 그러나 그것은 한갖, 우리 민족의 해방자로서의 그들에 대한 미담으로서 그치고 있지 않다. 인수 동무의 절절한 심정은 이것을 잘 말하여 주고 있다. 민족의 해방자에 대한, 생명의 구원자에 대한 보답의 길을 자기 조국의 번영에서 찾고 그 길 우에서 애국적 헌신성을 다하려는 견결한 의지—이 뜨거운 마음이 쏘련 인민들에 대한 우리 나라 인민과 청년들의 고상한 친선감에 일관되여 있다. 그리하여 조쏘 친선의 사상은 지구 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리념을 실현하는 한지향 속에서 지난 14년 동안 더 굳어지고 꽃펴왔다.

쏘련 인민은 우리 인민의 해방자만이 아니다. 우리 나라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황금 시절을 이루었던 평화적 건설 시기와 가렬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그리고 전후 시기 할 것 없이 우리 나라 력사의 매 발전 단계 마다에서 쏘련 인민은 우리 인민의 승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물심 량면의 원조를 주었던가!

먼 이야기는 그만두고 우리 인민이 재'더미 속에서 복구 건설의 첫 삽을 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라! 10억 루블리의 무상 원조—이는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었던 것인가!

김책 제철소, 수풍 발전소, 흥남 비료 공장 질안 공장, 남포 제련소, 평양 방직 공장, 룡성 육류 가공 공장, 신포 어류 통조림 공장 등 쏘련 인민의 원조로 일어선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은 조쏘 친선의 금자탑으로 영원히 솟아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 인민이 남의 나라 해방을 위하여 자기의 피를 아끼지 않았으며 그 후에도 계속 부절히 그 나라 인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그렇듯 아낌 없는 전면적인 원조를 주었다는 사실은 어느 력사, 어느 시대에나 다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직 그것은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으로 충만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나라들 호상간에만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불과 10 여년 전인 해방 전만 하여도 우리 나라는 락후하고 가난하였고 우리는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서럽게 살아왔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 밑에 동방에서 강유력한 공업—농업 국가를 건설하였다. 우리의 이 위대한 성과, 그 어느 하나도 쏘련 인민들이 준 물심 량면으로 되는 거대한 원조와 떼여 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조쏘 친선의 사상은 우리 나라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음으로 하여 더욱 견고하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직 지도된 항일 무장 투쟁—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이 피어린 투쟁은 쏘련을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수호하는 투쟁과 결합되였다.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회주의 국가를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수호함으로써만 조선에 사회주의 리상을 꽃피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항일 빨찌산들의 신념이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쏘련을 침공하려는 일제의 숨통에 칼을 꽂는 피어린 무장 투쟁으로써 쏘련을 지지 옹호하였다.

해방후 우리 나라 인민들과 청년들은 항일 빨찌산의 이 빛나는 혁명 전통을 이었다. 조쏘 친선의 사상을 깨뜨릴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지구 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리념을 실현하는 한지향 속에서 조쏘 친선은 영원히 굳어지며 꽃필 것이다.

공청원의 심장

조 동 욱

나는 1932년부터 1935년 까지 왕청현 유격대에 속해 있으면서 청년 사업을 하였다. 그 때 공청원들은 누구나 다 혁명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다. 그리고 매 싸움 마다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웠다.

그러나 그들이 공청 생활 초시기 부터 그처럼 훌륭히 싸운 것은 아니다. 그들은 처음엔 어린 《매》들이였다. 김 일성 원수의 현명한 령도와 유격대와 공청 조직의 꾸준한 교양하에서만 그들은 비로소 철저한 공산주의자로, 백전 백승의 혁명 투사로 자랄 수 있었다.

김 일성 원수의 교시는 우리 청년 공작원들이 공청원들과 사업함에 있어서 항상 행동의 지침으로 되였다. 그이께서는 어느날 우리 청년 공작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뜻의 말씀을 하시였다. 조선 청년들은 일제를 고도로 증오하며 손에 무기를 잡고 일제를 무찌르는 투쟁에 참여하기를 제일 큰 영예로 안다. 그리고 영웅심이 많고 정의감에 불타며 혁명성이 강하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귀중히 여겨야 한다. 그러나 이런 좋은 기질이 모험주의나 개인 영웅주의로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보살펴 주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

얼른 보면 다 용감하고 혁명적인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으나 자세히 관찰하고 보면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다. 례를 들어 적 앞에서 쓸데 없이 우쭐대는 것이 그러하다. 이것은 적을 과소 평가하는 경향인바 공산주의자들의 품성이 아니며 혁명에 큰 해독을 준다. 그러므로 청년들의 그런 좋은 기질이 모험주의와 개인 영웅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옳게 교양하여야 한다.

김 일성 원수께서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였다.

김 일성 원수의 이러한 교시에 철저히 의거하면서 우리 청년 공작원들은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때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갔다. 그러나 오늘도 나에게는 그 보람찬 날들의 기억이 생생하다. 그리고 경애하는 수령의 가르침 밑에서 공청 생활 초시기의 이러저러한 결함을 시정하고 공청원의 영예를 떨친 수많은 젊은 투사들의 얼굴이 눈 앞에 떠오른다.

《13련발》이란 별명을 가진 한 유격대원도 바로 그런 공청원이였다.

× ×

1933년 초겨울— 김 일성 원수의 친솔하에 있는 왕청현 유격대의 한 부대는 왕청 시내에서 좀 떨어진 산간 수림 지대에 자리잡은 소왕청 유격 근거지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곳에는 수많은 인민들도 살고 있었다. 일제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대부대를 동원하여 이 지역에 대한 《토벌》을 감행하고 있었다. 김 일성 원수께서는 이에 대처하여 유격 근거지에 대한 경비망을 강화하고 유격대원들로 하여금 완강한 방어 태세를 취하게 하였다. 《토벌대》가 근거지에 들어 오자면 쑥밭골이라는 골안을 지나야만 하였다. 쑥밭골로 들어오는 길은 좁은 협곡으로서 그 량쪽에는 험준한 산들이 련달아 있었다. 쑥밭골에서 유격대 지휘부까지는 10 리가 실하였다. 쑥밭골에는 11 명으로 구성된 아군 방차대가 상시적으로 주둔하고 있었다. 그들의 임무는 유격 근거지에로 침입하는 적 《토벌대》를 차단하고 《토벌대》 침입에 대한 급보를 제때에 지휘부에 알리는 것이였다. 이 중대한 전투 임무를 맡은 방차대의 책임자는 《13련발》이라는 별명을 가진 공청원이였다. (이 동무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원래 이 동무는 왕청 지방에서 활동하던 조선 청년이였다. 그가 왕청현 유격대에 입대하기 전에는 지방의 공청원으로서 싸웠다.

그가 지방의 공청원으로서 싸우던 1932년 경의 여름이였다. 공청 조직으로 부터 무기를 탈취하라는 임무를 받은 《13련발》은 두만강'가에 이르렀다. 나루터에는 세무소가 있었으며 무장한 왜놈 세관놈들이 있었다. 이놈들의 무기를 탈취하는 것이《13련발》의 계획이였다.

그는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지고 웃대의 주머니에다가는 각자를 꽂았는데 그 모양이 흡사 《도가다》판의 십장이나 다름 없었다. 그의 허리춤에는 권총이 있었다. 도하장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적었으므로 세관 놈들은 탁처럼 지어 놓은 세무소 안에 들어 가 있었다.

《13련발》은 어떻게나 담이 큰 동무였던지 세무소에 이르는 바람으로 척 문을 열고 들어 갔다.

한창 지꺼려 대던 세관놈들은 불의의 방문자를 멍청하니 쳐다 보는데 《13련발》이 먼저 말을 걸었다.

《나으리들 안녕하십니까?》

《응, 뭐냐?》 그 중의 한놈이 혀 꼬부라진 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나 말입니까? 조선 청년이 올시다. 공청원이 올시다.》

그러자 놈들은 앉은 자리에서 당황망조하였다. 《13련발》은 날쌔게 허리춤에서 권총을 빼여들고 말을 이었다. 《꼼짝말고 손들어! 나는 네놈들의 무기를 빼앗으려고 왔다.》 《13련발》은 재빨리 벽에 걸려 있는 보총 세 자루를 벗겨서 어깨에 멘 다음 경찰관 주재소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대란 말이지, 좋다. 그런데 네놈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거냐. 지금 여기에 〈공산당〉이 왔단 말이다. 빨리빨리 총동원 해서 오라.》

경찰관 주재소는 나루터에서 십리 가량 떨어져 있었다. 《13련발》은 그 즉시로 귀로에 들어섰다. 그런데 그가 산중턱으로 한참 걷고 있느라니 말을 탄 경찰대 놈들이 추격하여 왔다. 그리하여 《13련발》은 모진 난관에 부닥치게 되였다. 놈들은 기를 쓰고 《13련발》을 생포하려고 발악하였다. 위기 일발의 순간에서 《13련발》은 겨우 벗어져 나왔다.

그 후 《13련발》은 왕청현 유격대에 입대하였으며 무기 로획에 대한 그의 소문은 광범한 청년들 속에 퍼지였다. 우리들은 그의 공로와 용감성에 대하여 찬양하였다.

그러나 김 일성 원수의 교시를 명심하고 있는 우리들은 공청원인 그가 저도 모르게 모험주의적인 결함을 발로시킨 사실에 대하여 엄격히 추궁하였다. 《13련발》이 세관 놈들에게서 무기를 탈취한 다음 아무런 목적이 없이 전화로 경찰대를 호출함으로써 위험에 빠지였던 사실은 그의 모험주의적인 감정과 개인 영웅주의적인 기분에 기인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행동은 혁명 조직의 규률에 엄격히 위반되는 것이였다. 그가 범한 결함의 후과는 대단히 컸다. 공청원의 일거 일동에서 모범을 찾는 단련되지 못한 청년들이 그 모험주의적이며 개인 영웅주의적인 행동을 《혁명적》이며 《용감 무쌍》한 것으로 알고 그대로 받아 들여서 그처럼 행동하려고 서둘렀으며 또 실지 그와 비슷하게 행동함으로써 적지않은 손실을 당한 일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들은 그의 결함을 깨우쳐주고 시정해 주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13련발》은 처음에 우리의 충고를 접수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고집을 부렸다. 《…혁명을 위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무기를 빼앗아 왔소, 그런데 모험주의다구요. 아 그래 내가 진짜 개인 영웅주의자란 말이요?》 그는 이렇게 자기의 결함을 모르고 있었다. 모르는 이것이 문제였다. 우리 청년 공작원들은 이러한 경우에 항상 수령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새 힘을 얻군 하였다.

《…잘못을 깨달은 우리의 공청원들이 실지 투쟁을 통하여 결함을 대담하게 시정하리라는 것은 의심할바 없다. 문제는 그가 자기의 잘못을 진심로 깨닫고 뉘우치도록 어떻게 방조해 주는가에 크게 달려 있는 것이다…》

참으로 그러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그의 결함의 근원을 깊이 파고 들어 가서 찾아 내기에 노력하였다. 근원은 이러했다. 《13련발》은 대중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무한히 충실하려는 좋은 동무이다. 그런데 그는 혁명 조직의 명령과 집단적 규률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려는 정치적 각성 정도가 부족하며 그에 훈련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자기의 한 몸이 혁명 조직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데로부터 단독 임무 수행에서 제멋대로 행동하고도 그에 대하여 가책을 느끼는 정신이 희박하였다. 우리는 그가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하나 타일러 주었으며 혁명 조직에 대한 충실성을 실생활과 밀접히 결부시켜 알기쉽게 해설해 주었다. 한 공청원의 결함을 깨우쳐 주고 시정시켜주기 위한 전우들의 노력은 진지하였으며 그 비판의 분위기는 랭철하고도 엄격하였다.

전우들은 그에게서 발로된 사소한 결함까지도 다 폭로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주었으며 그 결함의 엄중성에 대하여 정당하게 지적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러한 결함들을 시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도까지 이야기하여 주었다. 우리가 진행한 엄격하고도 랭철한 비판이란 바로 이러하였다. 마침내 《13련발》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으며 실천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 주었다.

× ×

1933년 초 겨울 어느날——적의 대《토벌 대》가 (일본군, 위만군, 자위단)밤사이에 은밀히 쑥발골로 들어왔다. 쑥발골의 우리 망원초는 새벽 무렵에 그놈들을 발견하고 《13련발》에게 《토벌대》가 온다고 알렸다.

사태는 위급했다. 놈들은 개무리마냥 우리 방차대들이 들어 있는 귀틀집 주변을 포위할 태세로 조여들고 있었다. 정황을 판정한 소대장 《13련발》(쑥발골 방차대에 조직된 공청 소조 책임자)은 지체없이 한 대원을 지휘부에 띄워보냈다.

얼마 후 귀틀집은 놈들의 포위속에 들었다. 《13련발》을 비롯한 10 명의 우리 용사들은 아름드리 원목들로 튼튼하게 지어 놓은 귀틀집 방안의 사면에 배치되여 놈들의 거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13련발》은 말뚝을 무어서 만든 앞문 옆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는 문틈으로 원쑤들을 노려보면서 전우들에게 말하였다.

《동무들! 김 대장이 이곳에 나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쑥발골을 지켜내야 하오. 우리가 만약 이곳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유격대의 활동에는 물론 근거지 인민들의 생명, 재산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소. 적의 력량은 예상 밖의 대 병력이요, 그러나 동무들! 청년 공산주의자들인 우리가 뚫어내지 못할 난관은 없을 것이요.》

이 말은 전우들을 힘있게 고무하여 주었다.

귀틀집 정면으로는 수백명의 왜놈들이 기여 들어 왔고 그 우측 도랑창 숲에는 자위단 놈들이 욱실거리고 있었다. 귀틀집 후면의 야산 일대에는 위만군들이 누렇게 붙어 있었다. 그것들을 보는 《13련발》의 머리에는 얼른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왜놈들을 고립시켜야 한다) 뒤미처 그의 머리에는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궁리가 련달아 떠올랐다.

잠시후 《13련발》은 문짬에 입을 대고 높은 소리로 이렇게 웨치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원쑤는 왜놈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조국을 빼앗은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진정한 혁명군이다. 자위단 형제들아! 위만군 병사들아! 총뿌리를 돌려 우리의 원쑤인 일제를 함께 소탕하자!》

요란한 총소리가 터지였다. 악에 바친 일본 대장놈이 귀틀집의 대문짝을 겨누어 발사한 것이다. 《13련발》은 날쌔게 문짝에서 몸을 피하였다. 그 일본 대장놈은 서슬이 퉁퉁하여 일본도를 공중에 휘두르며 돼지 멱따듯한 소리로 《돌격!…돌격!…》하였다. 그러나 놈은 《13련발》이 쏜 명중탄에 즉사하였다. 놈들이 엎드려 있는 홈채기에서 귀틀집 까지는 200~300메터 가량 되였으며 그 어간은 펑퍼짐한 공지였다. 우리 용사들의 총뿌리는 모두 왜놈들에게로 집중되였다. 그리고 용사들은 함화를 계속 웨쳤다. 왜놈 장교들은 악이 머리 끝까지 올라서 졸병들에게 《돌격하라!》 하고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그러나 왜놈들은 돌격하지 못하고 머리를 땅에 묻은 채 정신 없이 헛총질만 하였다.

또다시 왜놈 장교 한 놈이 몸을 솟구치며 《돌격!》 소리를 쳤다. 그놈은 털보였다. 그 바람에 졸병놈들이 승냥이 떼마냥 기세가 나서 대가리를 쳐들고 돌격하려 하였다. 순간 털보놈이 으악 소리를 지르며 다시금 볼꼴 없이 나자빠졌으므로 적의 돌격은 또 실패되였다.

《13련발》은 세번째의 왜놈 장교마저 이렇게 즉사시켰다. 왜병들은 경황 없이 총질만 하다가 이번에는 한 놈이 자위단들이 엎딘 쪽으로 내다르며 《칙쇼! 네놈들은 무엇이나 했소까? 돌격이나 해란 말이다》 하고 소래기 질렀다. 그러나 자위단원들은 (좋은 무기를 가진 너희들도 돌격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기색으로 얼없이 일본 장교를 바라 보았다. 그리하여 애당초 돌격할 차비가 아닌 것을 눈치차린 그 장교놈은 왜놈들에게 《저것들을 당장 몰살시켯!》 하고 을렀다멧다.

《자위단 형제들아! 앉아서 죽지 말고 왜놈을 소탕하라!》 귀틀집 안에서는 이런 웨침 소리가 련거퍼 터져 나왔다. 이 웨침 소리를 들은 자위단원들은 저마다 웅성대며 이 환경에서 벗어나 목숨을 구하려고 뿔뿔이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이때 악에 바친 왜놈들은 도망치려는 자위단 쪽에 맹사격 했다. 자위단원들은 약 80 명 가량 되였는데 순식간에 그 대다수가 녹아났고 나머지는 허둥지둥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이 광경을 뒤'산에서 내려다 보고 있던 위만군들은 자기들의 처지가 바로 그렇게 죽게 될 것을 미리 알아 차리고 죽음을 두려워 산 넘어로 뿔뿔이 도망쳤다.

왜놈들은 독이 올랐다. 적의 기관총화력을 비롯하여 일체의 화력이 귀틀집에로 집중되였다. 우리 용사들은 집벽, 문턱, 문짝 등에 몸을 의지하고 치렬한 화력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우리가 소수임을 알고 있는 놈들은 기어히 돌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돌격은 좌절되였다. 놈들은 두번째의 돌격을 하여 왔다. 그러나 그것도 좌절되고야 말았다. 수'적 우세를 믿는 적들은 그래도 단념하지 않고 계속 달라 붙었다.

우리 용사들은 여섯번째의 적의 발악적인 돌격을 좌절시켰다.

귀틀집은 온통 적탄으로 하여 벌둥지처럼 구멍이 뚫어졌고 그들의 몸은 온통 피 투성이가 되였다. 이러한 전우들의 모습을 보는 《13련발》의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다. 그는 복쑤를 위하여 총을 으스러지게 틀어 잡고 귀축 같은 놈들을 향해 내달리고 싶었다. 그리고 피투성이 된 전우들의 이름으로 놈들의 대갈통을 마음껏 까부시고 싶었다. 이런 비장한 충동이 그의 가슴에서 꿈틀거릴 때 그의 눈앞에는 언젠가 눈물이 나오도록 자기를 비판해 주었고 타일러주던 동지들의 모습이 불현듯 안겨 왔으며 그처럼 엄격하고 뜨겁던 비판의 목소리들이 귀에 쟁쟁 울려왔다. 《13련발》은 《후—》하고 숨을 내쉬였다. 이와 함께 그의 심장은 높이 뛰였다. 그는 전우들에게 말하였다.

《결사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소. 공청원들! 나는 공청 소조 책임자의 이름으로 동무들에게 이런 것을 제기하오… 공청소조 회의를 엽시다.》 불'덩어리 같이 튕기여 나오는 그의 이 말에 공청원들은 타번지는 눈들을 번쩍거리며 그의 가까이에로 모여 들었다. 이리하여 결사전을 앞에 둔 귀틀집 안에서는 공청소조 회의가 열리였으며 열정으로 하여 떨리는 이런 말들이 울리였다.

《…탄알을 아껴야 한다. 야군 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이곳을 견지하여야 한다. 명령 없이는 사격할 수도 돌격해 나갈 수도 없다. 우리는 공청원들답게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용감히 싸워 김 일성 장군 빨찌산의 이름을 더욱 빛내자!… 원쑤 일제에게 무리 죽음을 주자!… 조국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자!》

적들은 일곱번째의 돌격을 개시하였다. 아귀 같은 왜놈들은 귀틀집의 사면을 압축하여 빠득 빠득 욱박하여 들어왔다. 탄환이 비'발처럼 귀틀집에로 쏟아졌다. 이제는 놈들이 수류탄을 뿌리며 달려 들고 있었다. 열 명의 우리 용사들은 자기 맡은 방향에로 달려드는 놈들을 저주에 찬 눈으로 노려 보면서 《13련발》의 명령을 기다리였다. 용사들의 얼굴에서는 비지 땀이 줄줄 흘렀다.

《13련발》은 때를 벼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사격 명령을 내리였다. 놈들은 복수의 철알을 가슴에 받고 무리로 꼬꾸라졌다. 그렇지만 살아 남은 놈들이 제놈들의 시체 무더기 사이를 누비며 검질기게 다가들어 왔다. 적 기관총수 놈들은 미친듯이 사격을 했다. 50 메터 가까이에까지 놈들이 조여 들어 왔다. 그것을 사납게 쏘아보던 한 용사는 저주에 찬 목소리로

《저놈들을 당장에…》하고 소리 치더니 몸을 솟구치며 달려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때 그의 뒤'덜미를 틀어 잡으며 《동무 왜 이러우!》하는 사람이 있었다. 《13련발》이였다.

《큰 것을 생각해야지… 큰 것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거듭 말하는 《13련발》의 목소리는 매우 엄격하였다. 그 어조 속에는 혹심한 고통을 참아내는 숨소리도 섞이여 있었다. 그는 이미 여러 곳에 부상을 당하였으며 또 출혈이 심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입술을 깨물고 혀'바닥을 깨물고서라도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그는 불사신 마냥 자기의 자리를 지켜 내면서 싸웠고 전우의 조급성을 진정시켜 주었다.

놈들의 수류탄에 귀틀집 한가운데가 무너지고 불이 붙었다. 불 붙는 기둥 하나가 뿌지직 하고 넘어지며 《13련발》의 몸에 부딪쳤다. 순간 《13련발》의 눈앞은 캄캄해 졌다.

잠시 후 그는 눈 앞이 점점 밝아짐을 느끼였다. 그리고 귀'전에 김 일성 원수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 동무들은 불사조들이요… 우리의 믿음직한 공청원들이요!》

《13련발》은 눈을 번쩍 떴다. 그는 이 목소리에 용솟음치는 힘을 온 몸에 느끼며 전신을 지지 누르는 아름드리 기둥을 와락 떠밀쳤다.

쐐쐑 소리를 내며 적탄이 귀뿌리를 핥듯이 날아치는 것이 알렸다. 《13련발》은 초연 속에 휩싸인 귀틀집 주변을 둘러 보았다. 우리의 용사들은 허물어진 귀틀집 진대나무, 수류탄이 터져 움푹하여진 웅덩이들에 의지하여 혈투를 하고 있었다. 그 눈, 그 입, 불굴의 그 기상들은 《13련발》을 감동시켰다.

적들은 30여 메터 가까이 까지 기여들어 왔으나 더는 육박하지 못하고 총질만 하고 있었다.

《13련발》은 주먹을 흔들면서 전우들에게 웨쳤다. 《공청원들아! 놈들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라, 한발'자국도 더는 기여 들어 오지 못하게 하라!》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 골안을 뒤엎는듯한 함성이 일어났다. 김 일성 원수께서 부대를 친솔하시여 이 쑥밭골에 도착한 것이다. 감격에 겨운 《13련발》은 그제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목이 메여지도록 《공청원들아! 김 장군이 오셨다.! 돌격—ㄱ!》하고 부르짖었다.

이것은 무조건 실행하여야 할 조직의 명령이 였다. 《아—!》하고 소리를 치며 공청원들은 앞으로 달려 나갔다. 그들은 기운을 몇 곱절 더 내여 미처 도망치지 못한 원쑤놈들의 뒤'통수를 마음껏 때려 부시였다.

× ×

《13련발》이라는 별명은 바로 이 쑥밭골 전투에서 붙여진 이름이였다. 오늘도 나는 친근한 그 이름을 불러 보며 가슴 뜨거워 진다.

조국과 혁명을 위함이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싸운 공청원들, 김 일성 원수의 가르침에 충직한 전사들, 오직 혁명의 조직 앞에 무한히 충실한 역군들… 이들—공청원들이 간직한 그 숭고한 심장을 가리켜 우리는 붉은 심장이라고 부른다.

나는 지금 그 높은 심장의 고동 소리를 천리마의 기세로 내닫는 우리의 민청원들의 벅찬 투쟁 속에서 듣는다.

해설과 설복은 민청 사업 방법의 기본이다

리 석 구

우리 민청의 사업 방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해설과 설복이다. 해설과 설복만이 청년들의 무궁 무진한 창조적인 힘을 동원할 수 있으며 민청 생활에서 뒤떨어진 민청원들도 훌륭하게 고쳐줄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실례를 들어 이야기해 보자. 민청원 리 동수 동무가 홍원군 운포 채석 사업소에 들어 간 초시기에 그는 몹시 말썽을 부렸다. 로동에 성실치 않고 《꾀병》을 부리면서 자주 무단 결근을 하였다. 봉급을 타면 음주와 매식에 망탕 써 버리면서 자신의 문화 생활을 잘 꾸리지 않고 합숙 생활에서 난잡하였다. 민청 총회나 학습회에는 참가하지 않았으며 민청 조직의 위임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리 동수 동무의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초기 초급 민청 단체는 욕설과 추궁도 해 보고 총회에다 내 놓고 공개적인 비판도 했다. 그러나 리 동수 동무에게는 아무런 개선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민청 생활에서 싫증과 위협을 느꼈고 자기를 비판하는 동무들에 대하여 은근히 반감을 품게까지 되였다. 초급 민청 단체 집행 위원회는 이 사실을 토의하고 다른 방법으로 리 동수 동무를 교양하기로 하였다. 그 후 초급 민청 단체 위원장 신 동진 동무는 자기가 속한 브리가다에 그를 망라시키고 그와 가깝게 지냈다. 그리고 그의 일을 도와 주면서 브리가다라는 것이 한 개 집단이며 이 집단을 위하여 자기가 맡은 일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해설해 주었다. 동시에 그의 지난날 생활과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속 털어 놓고 호상 담화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초급 민청 단체는 리 동수 동무가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어려서부터 이곳 저곳 다니면서 품을 팔아 생활하여 왔다는 것, 따라서 그는 누구의 따뜻한 교양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료해한 초급 민청 단체는 계속 그에게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에 대하여 그리고 민청원의 영예와 의무에 대하여 혁명 선배들의 투쟁 실기와 모범적인 민청원들의 생활과 결부시켜 꾸준하게 해설해 주었다. 이러한 나날이 거듭된 리 동수 동무의 생활에서는 개변이 일어났다. 오늘 그는 로동과 민청 사업에 성실할 뿐만 아니라 매달 20 원씩 저금을 하면서 생활을 문화적으로 꾸려 나가고 있다. 이 한 가지 실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민청원의 잘못을 고쳐 주는 데 있어서 욕설과 추궁하는 것 보다 해설하고 설복하는 힘이 더 크며 그것이 민청원들의 사상적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설과 설복의 방법은 당 정책 실행에 청년들을 조직 동원하는 사업에서도 큰 힘을 갖는다.

공작 기계 새끼 치기 운동이나 또는 파고철 회수 운동이 제기되였을 때 청년들을 그 실천에로 동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 속에 이 운동들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노는 의의와 필요성 그리고 그 방법 등을 해설하고 교양하여 인식시킨다면 이 사업은 당연코 큰 성과를 거두리라는 것은 틀림 없다.

그러면 초급 민청 단체들은 해설과 설복을 잘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로 초급 민청 단체들은 민청원들의 생활과 활동의 구체적 부문에까지 파고 들어가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요구하며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사상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료해 연구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기초 우에서 민청원들의 리해 관계와 실생활에 가장 가까운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해설 교양

하며 그것도 말로써만 할 것이 아니라 모범적 사실에 대한 견학 또는 직관 선전 등 다양한 방법을 배합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둘째로 해설과 설복은 민청원들이 인식하고 자각할 때까지 꾸준하고 인내성 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우에서 본 바와 같이 뒤떨어진 민청원들을 고쳐 주기 위한 해설과 설복은 한두 번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는 결코 없다. 문제는 얼마나 꾸준하고 인내성 있게 해설하고 설복하는가에 달려 있다. 사업에서 열성이 좀 적다거나 사소한 결함이 있다 하여 처음부터 무원칙한 비판이나 책벌을 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믿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도록 친절히 설복 교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업을 부단히 반복 진행하는 행정에서 그들은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자각하고 고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민청원들이 범한 과오와 그들이 처한 실정이 서로 다르드라도 모든 민청원들에 대한 해설과 설복은 반드시 해당한 시기의 당 정책을 납득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민청원의 영예와 의무를 자각시키는 방향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세째로 해설과 설복은 민청내 단결을 더욱 튼튼히 하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해설과 설복이 지도의 기본이라 해서 민청원들 속에서 나타나는 낡은 사상 경향과 결함을 융화 타협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과 설복을 하면서 동시에 원칙적인 비판과 충고는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민청내 사상적 단결을 약화시키는 일체 경향에 대하여서는 민청의 규약상 원칙에 엄격히 립각한 사상 투쟁을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끝으로 해설과 설복을 이상과 같은 원칙에서 옳게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초급 민청 단체 열성자들이 혁명적 군중 관점을 확립하고 사업 방법을 고치며 자체의 사업 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우선 자신으로부터 당 정책과 상급 민청 결정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민청원들의 현실 생활과 옳게 결부시켜 해설할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새형의 청년들

타원 기계 공장 김 승원 작업반원들은 얼마전에 《천리마 작업반》의 영예를 쟁취하였다. 《잘 살기 위하여, 남만 못지 않게 살기 위하여 달려 나가며 달려 나가도 부족해서 더 빨리 달려 가는》(김 일성) 억제할 수 없는 지향이 이곳 천리마 청년 기수들에게 불붙는 투지와 용기를 불러 일으켰다.

그들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참가할 것을 결의한 후 어느날이였다. 김 승원 동무를 포함한 12 명의 작업반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앉았다. 어떻게 하면 당과 혁명에 더많은 리익을 줄 것인가를 의논하였다. 그러자면 작업반원들이 자기 기대에 능통하며 공작 기계 새끼치기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 다량으로 소요되는 엑스까와똘, 자동차 기중기, 탑식 기중기를 더 많이 만들어 보내야 할 것이였다. 이리하여 생각해 낸 것이 일별 계획을 120% 이상 초과 실행하기 위한 《나의 기대 운동》과 《무결근, 무사고 운동》이였다.

당은 기계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교시하였다. 이 긴요하고도 중요한 과업을 실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작업반 성원들이 자기의 기대를 눈'동자와 같이 애호하는 문제가 중요하였다. 이를 위하여 김 승원 동무는 《무결근, 무사고 운동》을 제기하였다. 그는 자기 몸을 튼튼히 단련하여 결근을 없애며 동시에 한번의 기계 사고도 없이 기계를 돌림으로써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할 굳은 결심을 가졌던 것이다. 작업반 내 모든 동무들이 이 발기에 호응하였다.

김 승원 작업반에서는 어떻게 하면 설비 리용률을 더 높이며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자주 집체적으로 토의하였다. 이런 결과 기술 기능 수준과 문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였으며 또한 그 수준을 속한 시일 내에 현저히 높이기 위한 좋은 대책들을 찾게 되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술 학습과 일반 지식 수준 제고를 위한 학습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며 작업반원들의 기능 급수를 체계적으로 높이는 문제였다. 김 승원 작업반원들은 아침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기술 전습을 진행하였다. 기술 전습회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토론하였다. 가공하기 위한 정밀도, 청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바이트의 종류 및 그 기하학적 형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바이트의 우결함, 선반들을 자동 기대, 반자동 기대로 만들 데 대한 문제를 중심적으로 학습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이 《천리마 작업반》에는 5 명의 7급공과 3 명의 기수, 4 명의 견습공이 있다. 이렇게 기술 기능 수준이 높아가는 과정에서 《김 승원식 바이트》, 《나사 종합 바이트》, 《두날 쩨다》, 《사기 바이트》, 《고속도 절단 바이트》, 《고속도 강력 반자동 선반기》를 비롯하여 14 건의 창의 고안품들이 나왔다.

이미 널리 알려진《김 승원식 바이트》는 전국 절삭 경기 대회에서 1등의 영예를 쟁취하였다. 《김 승원식 바이트》는 김 승원 동무가 창안한 것인데 타빙 뽐프 12 개를 깎는데 이전 보다 7~8배의 능률을 내게 하였다. 그리고는 금번 기계 공업성 열성자 회의에서 광범히 보급된 《사기 바이트》 역시 절삭 속도를 높이며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즉 뽀베지트 바이트에 비하여 1.2배의 능률을 낼 수 있다. 《종합 바이트》 창안 전엔 각나사 치는 것이 애로였다. 그때 1 개 치는데 6시간이 걸렸다면 지금은 2~3 개를 더 깎고 있다. 즉 《종합 바이트》는 작년에 비하여 7배 정도의 능률을 더 낼 수 있다.

김 승원 《천리마 작업반》 내에서는 생산에서 얻은 경험을 서로 나누면서 호상 방조하고 고무하는 미풍이 수립되였다. 그들은 모두가 한사람처럼 주인답게 일하며 작업 실적을 높임으로써 여러번 순회 우승기를 쟁취하였다. 그들에게는 하루 생활을 기록하는 수첩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다진 결의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이 수첩에 적으며 또 작업 총화에서 지적된 우결함들을 적어 둔다.

그들은 다만 생산 행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생활에서 서로 돕고 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한 명의 결근도 없던 작업반에 2 명의 환자가 생겼다. 작업반원들은 한집 식구처럼 일하며 살던 그가 앓는 것이 가슴 아팠다. 김 승원 동무를 비롯한 작업반원들은 작업이 끝난 다음 환자의 구미에 맞는 음식을 사가지고 환자의 집을 찾아 갔다. 이런 아름다운 품성은 그로 하여금 빨리 완치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다.

작업반원들은 선반에서 깎고 남는 것을 리용하여 볼트 부슈 자리쇠를 만들어 이미 100여 원 이상의 리익을 국가에 주었다.

김 승원 《천리마 작업반》원들은 생활도 문화 위생적으로 알뜰히 꾸리고 있다. 작업장 마다 화분이 놓여 있고 집집마다 거의 벽시계, 책상들이 갖추어 지고 있다. 작업이 끝나면 의복을 갈아 입고 구락부로, 군중 무도장으로 밀려 간다. 라디오에서 울려 나오는 경쾌한 멜로디에 맞추어 흥겹게 춤추는 것이 생활화되고 있다. 김 승원 《천리마 작업반》원들은 자체의 정치 사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들의 고상한 혁명 전통을 일상적으로 연구하여 실지 사업과 생활에서 체현하고 있다.

본사 기자 윤 현주

청년축산 작업반



황해북도 신평군 남천리
청년 축산 작업반 초급 민청 단체
위원장 유 승 상

산간 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조합은 경지 면적이 제한되여 있다. 경지 면적은 총 면적의 8%에 불과한데 그것도 75%는 화전과 준화전이다. 땅은 척박하여 매년 농산물의 소출이 다른 평지에 비하여 낮다. 그러나 조합 경리를 보다 발전시켜 조합원들의 생활을 더 높은 수준에 끌어 올리자면 딴 방도가 나서야 했다. 그리하여 우리 조합에서는 지난 해 축산물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킬 데 대한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10월 확대 회의 결정 정신을 받들고 이 문제 해결의 고리를 축산업에서 찾았다. 우리 조합은 축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리한 자연 조건들이 있다. 그것은 조합 주변과 산과 들에 가축들을 방목할 수 있는 방목지와 초원들이 산재하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새 것은 항상 낡은 것과의 투쟁을 통하여 발전하는 만큼 초시기 축산업을 조합의 주되는 경리로 발전시키자는 의견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반대하여 나섰다. 그 후 축산반이 조직되기는 했으나 대체로 로인들이 아니면 신체 허약자들로 조직되여 일이 제대로 잘되지 않고 부업식으로 되였다.

이러할 때 초급 민청 단체는 민청 총회를 소집하고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청년들의 과업에 대하여 토론 하였다. 여기에서 리원두, 정 인협 동무들을 비롯한 많은 민청원들은 축산 부문에 솔선 진출할 것을 결의하면서 이미 많은 경험을 축적한 청년 기술 연구 그루쁘 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청년 축산 작업반을 조직할 것을 토의 결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금년 1 월에 28명의 우수한 민청원들로써 청년 축산 작업반이 조직 되였다. 청년 축산 작업반을 조직하기는 했으나 그의 운영에는 많은 난관들이 있었다. 우선 농업 협동 조합의 통합 사업과 관련하여 급격히 증대된 가축들의 축사와 사료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우선 축사 문제와 사료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자니 걸리는 것이 자재였고 유히나 막연한 것은 사료 문제였다.

그렇다고 겨울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축산반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앉아 지혜를 짜냈다. 그리하여 언 땅을 까고라도 통나무로된 축사를 건축하며 눈무지를 헤치고 방목지를 정리하는 동시에 자연 사료 원천을 최대한으로 탐구 리용하는 창발적 의견들이 나왔다.

이렇게 결의한 민청원들은 매일 작업장에 저녁 밥을 날라다 먹으면서 돌격전을 계속하였다. 이렇게 되자 일부 민청원들 속에서는 《공연히 사양공으로 되여 잠시도 쉴새 없이 고생만 한다》고 불평을 부리면서 농산 작업반으로 다시 돌아 갈 것을 공공연하게 제기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것은 난관을 극복하는 정신이 희박한데 원인이 있었다. 그래서 초급 민청 단체에서는 이 사실을 포착하고 항일 빨찌산들의 투쟁 이야기 모임을 가지고 엄동 설한의 밀림 속에서 며칠씩 굶으면서도 그에 굴하지 않고 일제와 싸워 이긴 혁명 투사들의 간고한 투쟁을 소개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고무하였다.



한편 초급 민청 단체는 이들의 문화 생활에다 관심을 돌려 초급당 단체의 지도와 방조 밑에 각종 문화 오락 기구를 마련하여 생활을 다양하게 조직할 수 있게 하였다. 동시에 세대주로 되여있는 민청원들에게는 작업에 편리하도록 축사 부근에 집을 이동시키는 실질적인 대책을 취했다. 이때로부터 신문 독보회와 당 정책 학습도 정상적으로 조직 진행했다.

이와 같은 초급 민청 단체의 조직 정치 사업에 의하여 민청원들의 열성이 높아졌고 작업에서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이리하여 불과 60일 만에 3,000 평방의 우사, 돈사를 건축하였으며 500여 정보의 방목지를 정리하여 사료 문제와 가축사 문제를 타개할 수 있었다. 민청원들은 그후 계속하여 마령서 밭 후작, 간혼작으로 옥수수를 심고 알곡 문제를 해결하고서도 많은 사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450 정보의 취산을 조성하며 부근의 초원 지대를 리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료 기지를 조성했다. 결과에 농후 사료를 1.5단위로 저하시키면서 돼지의 증체량을 월 평균 8 키로그람씩 제고시켰다. 이러한 결과 오늘은 425 두의 조선소와 1,350두의 돼지를 비롯한 대 가축만 하여도 1957년도에 비하여 375% 이상의 장성을 보아 농호 100호당 465두씩 차례지게 되였다. 뿐만 아니라 축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비료가 해결됨으로써 농산물의 정당 수확고가 종전에 비하여 500~1,300 키로그람 이나 증가되였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풀과 고기를 바꾸라》는 당의 구호를 대담하게 실천한 결과였다.

또한 우리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12 명의 민청원들을 축산 기능공으로 양성했다. 이들은 대황, 황철 나무 껍질, 콩죽 나무'잎, 기두 등으로 가축들의 백니증, 피부병, 위장염 등의 치료 약품을 발견하였으며 반복 종부를 실시하여 돼지 년 3산을 보장하여 가축들의 산자성을 제고했다. 또한 기계화 분조를 조직하고 물방아가 도는 힘을 리용하여 사료 절단, 사료 분쇄기를 창안하는 동시에 산'골짜의 물을 수통을 리용하여 매개 사료 조리장 까지 자동적 급수를 보장함으로써 년 6,000 여 명의 로력을 절약하게 하였다.

우리 초급 민청 단체는 이상과 같은 경험에 기초하여 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 결정 실천을 위한 민청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즉 전체 밭에 2모작을 실시하며 광범한 자연 사료를 적극 확보하여 공고한 사료 기지를 조성하며 1960년에 가서는 조합의 인구 1인당 육류 생산량은 95 키로그람, 우유는 6 키로 그람, 계란은 600 개, 꿀은 8 키로 그람씩 차례지게 할 것이다.

이리하여 벌써 25 정보의 밀 밭 후작으로 옥수수와 콩을 심었으며 18 정보 이상에 달하는 휴경지를 개간하여 감자, 옥수수를 심고 사료천으로 전환시켰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업을 증강 공화하면서 전국 축산 부문 청년 열성자 회의 결의 실천을 위한 문제도 토의했다.



신포 어로 사업소 《심해 20호선》 어로공 송 복 덕

내가 당의 호소를 받들고 바다에 진출하여 《심해 20호선》을 탄 첫날이였다.

일부 어로공들은 《처녀 동무! 녀자가 심해에서 어로 작업을 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소, 애당초 부터 륙지에서 녀자들에게 알맞는 일을 찾는 것이 좋을 게요.》 하면서 못마땅해 하는 것이였다.

그러나 당을 믿고, 따르는 민청원인 나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 당은 항상 녀성들을 승리와 행복에로 이끌어 주고 있다. 나는 당이 녀성들을 바다에로 부른 것도 조국의 륭성 발전과 녀성들의 행복을 위함이며 녀성들도 바다 일을 얼마든지 훌륭히 해 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간직하였다. 그러나 10 리도 못 가서 배멀미로 누워 앓게 되였을 때 나는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겨 낼 것인가? 하고 몹시 걱정하였다. 그런데다 일부 사람들한테 《그것 보시요. 래일 부터라도 달리 맘 먹는게 좋겠소》하는 바라지도 않는《동정》을 받다 보니 나는 부끄럽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나는 민청원으로서 마땅히 배멀미를 이겨 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첫 술에 배부른 법 없다고 차츰 멀미에도 익숙해 지리라고 믿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며 (이 바보야! 굴하면 어떻게 되니?)하고 자신을 책망하기도 했었다. 나를 채찍질 해준 것은 이것 만이 아니였다. 나의 심장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간직되여 있었던 것이다.

당의 부름 따라 내가 바다로 올 때 군대에서 복무하는 애인에게는 우정 사연을 알리지 않았다. 그것은 바다에서 보람찬 일을 시작해 놓고 떳떳한 소식을 전하자는 심산이였다. 그런데 소식은 고사하고 이런 사정을 애인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미친 나는 어떠한 난관이라도 극복하고 처녀들도 얼마든지 배를 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다지였다.

3면이 바다인 해양국의 처녀가 멀미가 무서워 바다에서 쫓기우다니… 나는 용기를 냈다. 이것을 본 민청 위원장은 나에게 귀'속말로 속삭이였다.

《복덕 동무! 됐소. 겁내지 마오 자! 사탕물을 마시고 용기를 내시오. 참을성과 용감성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멀미를 이겨 내는 법이요.》 그의 말이 옳았다. 일주일 만에 멀미를 이겨냈다. 이렇게 되자 어로공들은 《그 처녀가 대단한데, 한 번 같이 일을 해볼만 하다.》고 하며 나를 믿어 주었다.

그리하여 내가 그렇게도 바랬던 어로로동이 시작되였다. 나는 일에 익숙된 어로공들의 도움을 받아 배'일에서 제일 힘이 든다는 1,200 메터나 되는 로프를 감는 일부터 시작했다. 처음에는 위험하기도 했으나 인차 익숙해 졌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감을 수 있게 되였다. 여기서 자신을 얻은 나는 이제는 무엇이든지 빨리 배워 완전히 배'일에 익숙해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선장 아바이는 물론 모든 어로공들에게 짬만 있으면 항해, 기관, 전기 등 과목들과 안전 규정에 대하여 시끄러울 정도로 물었고 얻어진 지식을 곧 실천해 보군 했다.

이렇게 되니 나의 기술은 점차 늘어 4급공이 되였고 현재 5급공의 수준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하여 5월부터 시작된 낙지 잡이에는 나도 훌륭한 전투원으로 참가하였는데 이 어로 작업에서 나는 동무들에게 《로케트》라는 별명으로 불리울 정도로 날쌔게 동작하였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5월에 자기 계획의 230%, 7월에는 180%에 해당하는 물'고기를 잡았다. 이 일은 우리 어로공들 뿐만 아니라 선장도 기관장도 그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다.

박 한재 선장 아바이는 나더러 오래지 않아 사업소에 생길 《처녀호》의 선장'감이라고 하면서 수시로 항해 기술과 조타 방법을 개별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 나는 일에 더욱 성수가 났다.

나는 밥도 짓고 고기도 잡고 선장의 일도 해 보고 모든 일을 찾아서 했다. 날이 감에 따라 바다에서 우리의 일은 더욱 흥겹고 생활이 즐거워 졌다. 우리의 기술도 놀랄 만치 늘어갔다. 모든 어로공들이 지금 부선장의 위치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다. 나도 오래지 않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다의 선배들을 부러워 하지 않는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랑하는 애인으로 부터의 편지를 바다에 진출한지 182일만에 배 우에서 받았다는 기쁨을 나는 숨기려 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 편지에다 나더러 큰 배의 처녀 선장이 되라는 당부를 했다. 그러면 자기도 군대 복무를 끝마치고 신포 바다에 와서 우리 배에서 함께 일해 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행복할 그날이 더욱 빨리 찾아오도록 서로 자기 힘껏 일하자는 것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당이 가리키는 대로 자기 맡은 일을 성실히 하면 할 수록 우리의 행복은 한 걸음 두 걸음 더 빨리 다가 올 것이다.

나는 이 귀중한 행복을 나의 벗들과 나누고 싶다. 하루 빨리 많은 처녀들이 바다로 왔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청춘의 바다에서 단련된 총각들과 함께 보람찬 어로 로동을 통하여 진실한 애정을 맺으며 우리의 손으로 아름다운 신포항에 문화 주택을 꾸리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약속하고 싶다.

이것을 아십니까?

우리 나라 야산에는 어떤 꽃들이 있는가?

우리 나라 야산에는 각가지의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데 그 가지 수는 무려 200여 종이나 된다.

그 중에서도 도라지꽃, 할미꽃, 양지꽃, 동자꽃, 꽃방맹이, 진달래꽃, 함박꽃, 춘낫 민들레, 패랭이꽃, 개나리, 백종화, 하늘나리, 금강 봄맞이, 잠배, 깽깽이풀, 수수꽃따리, 앉은뱅이, 분홍 바늘꽃 등은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아름다운 꽃들이다.

초급 민청 열성자들에게

민청 분조 사업에 대하여

석 일 동

민청 분조는 초급 민청 단체의 지역적, 생산적 단위를 고려하여 옳게 조직하여야 한다.

례를 들어 생산 기업소 내 직장별로 조직된 초급 민청 단체라면 매개 브리가다에서 일하는 민청원들의 분포 정형을 고려하여, 농업 협동 조합 내 작업반 단위로 조직된 민청 단체라면 작업반에 조직된 분조별 혹은 민청원들의 거주 지역 등을 참작하여 조직하여야 한다.

민청 분조는 초급 민청 단체 (부문별 민청 단체)의 결정에 의하여 조직하고 시 (구역), 군 민청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민청 분조장은 분조 회의에서 선거할 수도 있고 초급 민청 단체 집행 위원회에서 임명할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조장도 선거할 수 있다. 민청 분조의 조직 원칙과 그의 절차는 이상과 같다.

다음으로 민청 분조의 위치와 그 임무에 대하여 설명하자.

민청 분조는 초급 민청 단체와 유리된 별개의 민청 조직이 아니다. 민청 분조는 어디까지나 초급 민청 단체의 일부분이며 민청 분조의 활동은 곧 초급 민청 단체의 활동과 련결되여 있다. 민청을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며 당이 내세운 혁명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청의 기층 조직인 초급 민청 단체를 강화하여야 하는바 초급 민청 단체를 강화하는 사업의 한 부분으로서 민청 분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민청 분조가 초급 민청 단체에서 수행하려는 과업과 떨어져서 독자성, 자립성을 운운할 수는 없다.

민청 분조는 초급 민청 단체가 제기하는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적극 추진시킬 임무를 지니고 있다. 민청 중앙 위원회 제 4 차 전원 회의 결정에는 《민청 분조들은 초급 민청 단체가 제기한 과업을 민청원들 속에서 잘 해석 침투하여 그 실행에로 옳게 조직 동원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지적되여 있다.

민청 분조들은 이와 같이 초급 민청 단체가 제기하는 과업을 적극 실천할 뿐만 아니라 실천 행정에서 제기되는 이러 저러한 문제들, 그리고 초급 민청 단체 전반에 대한 자기들의 의견을 수시로 초급 민청 단체에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초급 민청 단체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분조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충분한 연구 끝에 건설적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초급 민청 단체가 모든 과업 집행에서 정확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적극 방조하여야 한다. 또한 민청 분조는 자기 분조 내 민청원들의 생활을 일상적으로 돌보면서 그들의 요구와 애로를 제때에 해결하여 주며 그들이 담당한 사업에 대하여 적극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민청 분조는 자기에게 맡겨진 이와 같은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사업해야 하는가?

첫째로 민청 분조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초급 민청 단체 사업 계획이 아무리 구체적으로 수립된다 하여도 매개 분조들이 할 사업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는 없다. 때문에 분조는 자기의 사업 계획을 가져야 한다.

분조는 자기의 사업 방향을 해당 초급 민청 단체의 월 사업 계획에 의하여 잡으며 이에 근거하여 분조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된 사업 계획은 분조 회의나 기타 방법을 통하여 민청원들에게 알려 주며 그들로부터 더 좋은 의견을 들어 사업에 방조를 받는 것이 좋다.

분조 사업 계획은 문건화 할 필요는 없다. 간단 명료하게 그달에 할 사업을 분조장 자신의 수첩에 기록해 넣고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시키면 된다.

둘째로 분조 회의를 정상적으로 가져야 한다. 민청 분조 회의는 제기된 과업의 성과적 실행에 민청원들과 청년들을 조직 동원함에 그 중심을 두어야 한다.

민청 분조 회의에서는 초급 민청 단체 총회 결정과 집행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과업들을 민청원들에게 전달하며 그의 성과적 실행을 위한 방책을 토의한다. 동시에 분조 회의에서는 자기 분조의 사업과 생산 및 사회 생활 문제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하며 나타난 결함들을 시정하고 사업과 생산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한다.

분조 회의에서는 이와 같이 제기된 과업 실행 문제를 토의할 뿐만 아니라 민청원들을 사상 행동상 단결시키기 위하여 높은 비판적 정신에서 그들의 사업과 생활 정형에 대해서도 토의하여야 한다.

민청 분조 회의는 문제를 기민하게 그리고 실무적으로 토의하여야 한다. 민청 분조 회의에 중심이 없는 막연한 문제를 내놓거나 일반적인 문제를 취급하여서는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구체적이며 실제 행동화하여야 할 실천적 문제들을 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청 분조 회의는 어떤 형식과 틀을 차릴 필요가 없으며 짧은 시간에 진행되여야 한다.

민청 분조 회의를 1주일에 1차, 혹은 월 몇차 등으로 고정시킬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민청 분조는 그 활동에서 민활성이 보장되여야 하기 때문이며 또는 예견하지 못한 이러 저러한 문제들이 적지 않게 제기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조장은 항상 자기 분조 내 제반 사업을 살피며 상급 민청 단체와 초급 민청 단체, 혹은 자기 분조가 제기한 과업들의 실행 정형을 일상적으로 살피면서 나타나는 부족점, 시급히 해결되여야 할 문제들이 제기되면 그의 시정 및 실행 방도를 자신이 충분히 연구한 기초 우에서 임의의 시간에(휴식 시간, 점심 시간, 작업 전과 작업 후 등) 민청원들을 소집하고 문제를 제기하여 토의 해결하여야 한다.

세째로 민청 분조는 개별적 민청원들에 대한 분공을 옳게 조직하여야 한다.

민청 분조에서 민청원들에 대한 분공 조직은 우선 자기 앞에 제기된 과업 수행에 광범한 민청원들을 인입 동원하는데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민청원들의 실무 수준을 제고하며 그들에게 군중 공작 방법을 체득시키며 민청원들을 사상 정치적으로 훈련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데 민청원들에게 분공을 줄 때에 그들의 수준과 력량, 소질 등을 고려함이 없이 아무렇게나 분공한다면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만일 분공 조직을 이렇게 한다면 일부 민청원들에게는 과중한 과업이 부담되여 그를 실행 못함은 물론 오히려 민청 생활과 사업에서 흥미를 잃게 하며 력량이 있으면서 단순한 분공을 맡은 일부 동무들은 사업에서 긴장성이 해이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지혜와 력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게 되므로 민청 사업에 그만한 손실을 주는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민청 분조는 매개 민청원들의 구체적 형편에 따라 그에 적합한 분공을 주어야 하며 그에 대한 옳은 지도와 방조를 주어야 한다.

민청원들에 대한 분공은 분조 회의에서도 할 수 있고 분조장이 개별적으로도 줄 수 있다.

분조장은 민청원들에게 분공을 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분조 회의나 분조장 자신이 준 분공의 실행 정형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또 반드시 총화하여야 한다.

민청 분조는 자기 분조 내 민청원들 중 상급 민청 단체나 초급 민청 단체로부터 직접 사업 분공을 받은 동무가 있다면 그의 실행을 위한 일정한 방조를 주어야 한다.

혁명가요 해설

인터나쇼날

김 오 준

세계에는 수 많은 나라가 있고, 수 많은 언어가 있고, 수 많은 노래가 있다.

그러나 이 수 많은 각이한 국가, 수 많은 언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로동 계급과 피착취 대중들에게 있어 가장 친숙한 노래가 있으니 바로 이것이 인터나쇼날의 노래다.

인터나쇼날의 어원은 라틴어 《인터》(사이)와 《나쇼》(인민)란 단어에서 유래하고 있다. 즉 인민들 간의 친선과 단결, 더 정확히 말하면 로동 계급을 비롯한 피착취 대중들의 국제주의적 단결과 친선을 의미한다.

인터나쇼날의 가사는 1872년 6월에 파리 꼼무나 시인인 뽀찌에가 썼다.

뽀찌에는 1848년 2월 혁명과 6월 폭동의 참가자였으며 1860년대와 제1 인터나쇼날 시기의 로동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1871년에는 파리 꼼무나의 위원으로 선거되였으며 꼼무나의 모든 활동들에 직접 참가하였다.

뽀찌에의 모든 활동에서 우리가 높이 찬양하는 공적은 그가 자기의 심장으로 쓴 인터나쇼날의 노래로써 우리를 무한히 고무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레닌은 《뽀찌에는 자기 스스로 참말 천성의 기념탑을 남겨 놓았다. 그는 가사라는 수단에 의한 가장 위대한 선동가들 중의 한 사람이였다》라고 평가하였다.

인터나쇼날의 가사는 1888년에 작곡가 삐. 데제이쩨르에 의하여 작곡되였으며 그 해 6월에 릴리시 로동자 명절에 처음으로 연주되였다. 이때로부터 이 노래는 광범한 로동자 대중들 속에서 그들의 심장을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이 노래는 각국의 민족어로 번역되였으며 제국주의 시대의 계급 투쟁과 프로레타리아 혁명에서 로동 계급의 국제적 련대성과 단결과 투쟁을 고취하는 전투적인 노래로서 자기의 의의를 더욱 뚜렷이 하였다.

인터나쇼날은 1917년 로씨야에서의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이후 쏘련 국가로 불리여 졌으며 1944년에 쏘련 국가가 새로 제정되면서 쏘련 공산당 당가로 되였다. 오늘 이 노래는 비단 쏘련 공산당의 당가로 뿐만 아니라 각국 공산당과 로동당의 노래로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인터나쇼날의 가사를 중심으로 하여 그의 내용을 보기로 하자.

일어 나라 저주로 인 맞은
주리고 종된 자 세계
우리의 피가 끓어 넘쳐
결사전을 하게 하네
억제의 세상 뿌리 빼고
새 세계를 세우자
짓밟혀 천대 받은 자
모든 것의 주인이 되리
이는 우리 마지막
판가리 싸움이니
인터나쇼날로 인류가 떨치리
이는 우리 마지막
판가리 싸움이니
인터나쇼날로 인류가 떨치리

이상 인터나쇼날 제 1절의 원문을 음절수나 운률에 구애되지 않고 의역하면 다음과 같다.

저주로운 존재로 락인된 굶주린 자와 노예들의 온 세계여! 궐기하라! 우리의 분노의 심장은 들끓고 죽음의 싸움터로 내달릴 모든 준비는 되여 있다. 우리는 억제의 전 세계를 뿌리까지 뒤엎으며, 다음에는 우리의 새 세계를 건설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 판가리 싸움이니, 온 인류는 인터나쇼날과 더불어 지축을 흔들리.

하느님도 임금도 영웅도
우리를 구제 못하리
우리는 다만 제 손으로
해방을 가져 오리라,
거세인 솜씨로 압박 부시고
제 것을 찾자면
풀무를 불며 용감히 두다려라
쇠가 단 김에

제 2절의 원문을 의역하면

하느님도 제왕도 영웅도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며, 우리는 자기의 손으로 해방을 달성해야 한다. 능숙한 솜씨로 압박을 부시며 잃었던 자기의 모든 것을 찾기 위하여 쇠가 달고 있는 동안 거세게 풀무질을 하여라! 채찍질하라!

우리는 오직 전 세계의
위대한 로력의 군대
땅'덩어리는 우리의 것이니
기생충에게는 없으리
개무리와 도살자에게는
큰 벼락 쏟아져도
우리의 머리 우에는 찬란한
태양이 비치리

제 3절을 의역하면

오직 위대한 전 세계 로동 군대인 우리들만이 세계를 차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허나 기생충들에게는 그 어느 때도 이러한 권리가 없다. 개무리 (제국주의 도배들과 그의 주구)와 도살자 (교형리)들에게 큰 벼락이 쏟아질 때 우리에게는 태양이 자기의 찬란한 빛을 비쳐 줄 것이다.

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나쇼날은 높은 혁명적 빠뽀스로 일관되여 있다.

우선 이 노래는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와 근로 대중의 계급적 단결과 자각과 강한 조직성에 대한 호소로서 우리의 심장을 격동케 한다. 맑스와 엥겔스가 자기의 불후의 로작—《공산당 선언》을 끝마치면서 호소한 《전 세계의 로동자들은 단결하라!!》는 위대한 사상을 뽀찌에는 자기의 가사 인터나쇼날에서 소리높이 호소하였다.

다음으로 이 노래는 원쑤에 대한 비타협적 증오와 자본주의—제국주의 사회 전복을 위한 철저한 전투적 정신으로 우리를 고무해 주고 있다.

하느님도 임금도 영웅도
우리를 구제 못하리
우리는 다만 제 손으로
해방을 가져 오려라

과연 그렇다! 하느님에 대한 망상도 임금에 대한 기대도 결코 로동 계급의 해방을 가져 올 수는 없다. 로동 계급은 오직 자기의 단결이라는 무기로 자본주의 사회를 전복하고 자신의 해방을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마지막 판가리 싸움이니
인터나쇼날로 인류가 떨치리

《억제의 세상》—자본주의 사회를 전복하고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로동 계급은 《잃을 것은 철쇄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그러나 그들이 얻을 것은 전 세계이다》. 그러기 때문에 자본가, 지주들에게 저주로운 존재로, 그들의 멸시와 학대 속에서 신음하던 굶주리고 무권리한 피착취 대중들은 응당 원쑤들과의 판가리 싸움에로 내달릴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시인은 이것을 강한 전투적 기백으로 호소하고 있다. 동시에 시인은 이 투쟁이 어디까지나 철저하며 결정적이여야 한다는 사상을 《풀무를 불며 용감히 두다려라, 쇠가 단 김에》라고 혁명적 정열로써 격조 높이 노래하였다.

다음으로 이 노래는 새로운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명백한 목적 지향성으로 우리를 흥분시키고 있다.

《짓밟혀 천대 받은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사회—이것은 바로 공산주의 사회다. 이러한 새로운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명백한 목적 지향성은 이 노래에서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 혁명적 랑만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있다.

인터나쇼날이 처음으로 불리여진 때로부터 70여 년이 지나 갔다. 세계의 6분지 1을 차지하는 광대한 지역에서 위대한 레닌과 레닌이 지도한 쏘련 공산당의 령도 밑에 로씨야 로동 계급은 이 노래—인터나쇼날을 부르면서 짜리 전제 제도를 전복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였으며 오늘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930년대에 김 일성 원수를 선두로 한 우리 나라의 절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인터나쇼날의 노래를 부르면서 세계 혁명의 일부분으로서의 우리 나라 혁명 승리를 위하여 일제를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투쟁하였고 항상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충실하였다. 항일 빨찌산들은 직접 무장으로써 쏘련을 옹호하였으며, 중국 혁명을 피로써 방조하였다. 동시에 항일 빨찌산들은 공산주의자들의 대가정 속의 일원으로서 항상 쏘련의 위력과 국제 혁명 력량에 의거하여 투쟁하였으며 거기에서 무한한 힘을 얻었다.

오늘 우리 나라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현명한 지도를 받들고 이 노래—인터나쇼날을 부르면서 조국의 평화 통일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천리마의 기세로 내닫고 있다.

뽀찌에는 세상을 떠났으나 그가 자기의 가사—인터나쇼날에서 호소한 사상과 리념은 인류의 더욱 많은 사람들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고무하고 단결시키면서 더욱 생생하게 살아 있다.

생활의 거울

《화물원의 영예》

하루는 흥남역에서 일하고 있는 화물원 김 영순 동무 한테 한 소년이 찾아 왔다. 소년은 영순 동무를 보자 반가워하면서 《아저씨!》하고 말하는 것이였다. 《우리 조합 관리 위원장 아저씨가 아저씨더러 8.15 명절에 꼭 놀러 오시랍니다. 협동 조합의 록식도 구경하시고 풍작 이룬 감자 국수를 잡수시러 오시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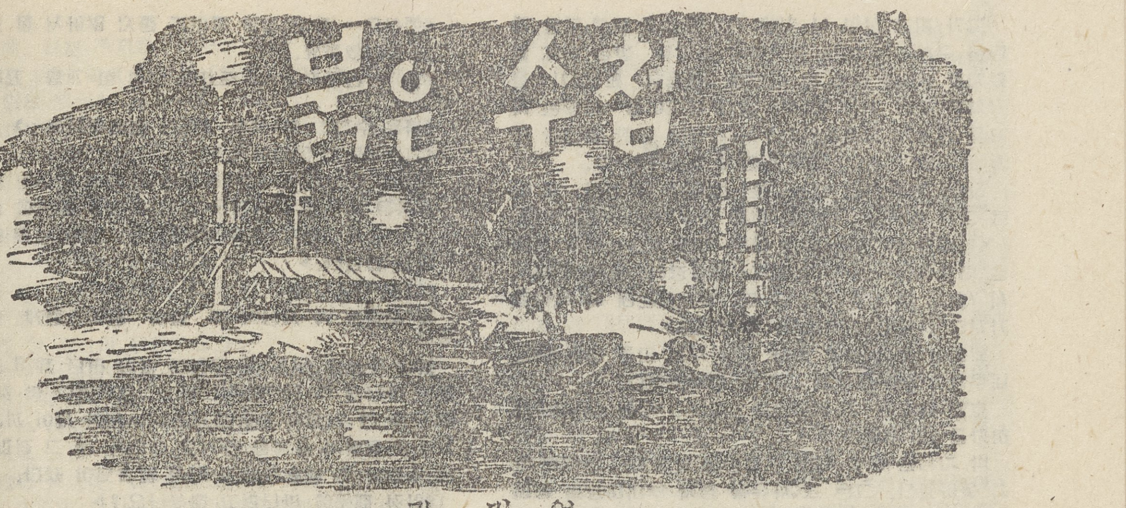
영순 동무는 눈'시울이 저절로 뜨거워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이때처럼 화물원의 영예감을 절실히 느껴 본 적은 없었다.

× ×

지난 이른봄, 어느 날에 있은 일이였다. 영순 동무는 하차한 화물을 창고에 저 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화물 가운데는 면 량강도에서 흥남시 어느 농업 협동 조합으로 보내 오는 감자 종자가 있었다. 영순 동무는 이 감자 종자를 조합에서 찾아 갈 때 까지 딴 화물처럼 창고에 넣어 둘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철을 따져 보니 벌써 감자 파종기가 닥쳐 왔던 것이다.

영순 동무는 퇴근 즉시로 10리'길이나 되는 조합을 찾아 가서 감자 종자를 빨리 찾아 다가 제때에 파종하도록 방조를 주었다. 그런 결과 조합은 제철기를 놓치지 않고 감자를 파종할 수 있었고, 마침내 풍작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조합에서는 영순 동무를 잊지 못하는 마음으로, 8. 15 명절에 감자 국수를 같이 나누자고 그에게 한 소년을 보냈던 것이다.

(본사 기자)



리 기 영

7. 불발 폭탄

그이튿날 식전에 박 지성은 정치 부대대장 한 석천을 찾아 가서 화약 문제를 제기하였다.

《정치 부대대장 동지! 7형제 바위의 나머지 여섯 개를 마저 까부수자면 화약이 많이 소용되겠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선하는 중이요. 트레스트 지배인 동지한테도 부탁 하였소.》

《속히 받을 수 있을가요?.》

박 지성은 정치 부대대장의 정확한 대답을 듣고 싶었다.

《아마 그리 속히는 아니 될거요.》

《그럼 좋은 수가 있는데요. 폭약은 제가 책임을 지고 구해 보렵니다.》

《아니 동무는 무슨 수가 있기에 그많은 화약을 어데서 구해 보겠다는 거요?》

정치 부대대장은 곧이가 아니 들리는 것처럼 박 지성을 쏘아 보며 하는 말이였다.

《미국놈들이 떨군 불발 폭탄이 사방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이 칠교리 뒤'산에도 한 톤짜리 폭탄이 묻혀 있다는 말을 부락 주민들 한테서 들었습니다. 그런 불발탄을 주어 모으면 화약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박 동무, 위험한 불발탄에 손을 대였다가 사고나 치면 어쩔려구 그러오, 건 그만 두시오.》

정치 부대대장은 펄쩍 놀래며 두말도 못하게 억제하려고 한다. 그때 박 지성은 한참동안 염 없이 마주 쳐다 보다가 이렇게 항변을 하였다.

《아니 정치 부대대장 동지께서도 보수주의를 가지셨습니까?》

《글쎄 나에게 보수주의가 있는 지는 모르지만 불발탄을 주어 들겠다는 거야 누구나 다 위험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겠소.》

정치 부대대장 한 석천은 다소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한다.

《정치 부대대장 동지! 저는 인민 군대의 공병이였습니다. 저의 기술을 믿어 주십시요. 화약 문제는 당장 시급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부문에서 예비를 찾아내며 자재를 절약하라는 것이 당의 호소가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놈들이 쏘아 놓은 불발 폭탄을 주어다가 7형제 바위를 까부숴 버린다면 그만큼 화약이 절약되어서 다른 건설장으로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화약 문제는 제게다 일임해 주십시오.》하고 박 지성은 간곡히 사정말을 한다.

《대대장 동지와 의논해 보았소?》

《네, 말씀드려 보았더니 정치 부대대장한테 문의하여 좋도록 하라고 그리십데다.— 그럼 저는 아침을 먹는 길로 떠나겠습니다.》

《떠나다니 어데로 떠난단 말이요?》

《이 뒤'산에 있는 불발탄의 뢰관을 뽑아가지고 신계 내무서로 들어가서 우선 폭탄 채취의 허가를 맡아야 하겠습니다.》

말을 그치자 박 지성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선다.

《아니 동무는 정말로 자신이 있어서 하는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무턱대고 한 번 해 보자는 거요?》

정치 부대대장도 마주 일어서며 박 지성의 기색을 의심스레 살펴본다. 그는 도무지 조심이 되어서 박 지성의 말을 그대로 믿기가 어려웠다.

《정치 부대대장 동지께서는 저를 그렇게도 못 미더워 하십니까? 문제 없이 폭약을 구해 올테니 념려마십시요》.

박 지성은 이렇게 말하자 그길로 휭하니 나가버린다. 정치 부대대장은 반신 반의하는 태도로 박 지성이가 나가는 뒤'모양을 한동안 우두커니 서서 바라 보았다.

조반을 먹은 후에 박 지성은 휘파람을 불며 칠교리 뒤'산으로 올라 갔다. 그는 무슨 일에 신이 날 때면 휘파람을 부는 버릇이 있었다.

주민들이 위험을 느끼고 금'줄을 쳐놓은 자리에서 한 톤짜리 폭탄을 발견하자 그는 손쉽게 뢰관을 뽑아 내였다. 내려오다가 그는 어제'밤에 전 숙희와 나란히 앉았던 바위'돌 우에 앉아서 담배 한 대를 피워 물었다….

그가 지금 신이 난 것은 자기의 희망 대로 불발 폭탄을 구하라는 대대 지휘부의 승낙을 받은 데도 있었지만 어제'밤에 전 숙희와 조용히 만날 기회를 가졌던 것이 또한 기뻤던 것도 사실이다—숙희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 혁명에 대한 열정과 사랑에 대한 희망이 그의 심장을 뛰게 하였다.

담배'불을 끄고 나서 그는 벌떡 일어 섰다. 그 길로 그는 뢰관을 가지고 신계 내무서를 방문하였다.

《침교리 뒤'산에 있는 한톤 짜리 불발탄에서 뽑아 온 뢰관입니다. 우리 철도 건설장에 화약이 없어서 7형제 바위를 발파할 도리가 없는데 이 폭탄을 가져다 쓰도록 허가하여 주십시요.》

뢰관을 꺼내 놓고 이와 같이 사정 말을 하는 데는 내무서에서도 그것을 의당히 생각하였다.

호안 과장은 내무서장과 의논한 후에 즉석에서 허가를 내 주었다.

박 지성은 신이 나서 휘파람을 불며 제 3 대대로 인차 돌아왔다. 그는 그 사유를 정치 부대대장과 중대장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그날 돌격대원들과 같이 뒤'산으로 올라가서 한 톤짜리 불발탄을 떼메워 내려왔다.

박 지성은 본래 성미가 괄괄한 편이다. 그는 무슨 일을 시작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중하는가 하면 또한 시작한 일은 기어히 끝장을 내고야 마는 손'끝이 여물었다. 어떤 사람은 일을 벌리기는 잘하나 뒤'수습을 못해서 룡두사미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소심하여서 무슨 일을 당하면 엄두를 못 내는 데 이런 사람들은 평생 큰 일은 못할 것이다.

대대의 간부들도 이번의 불발탄 해제에 성공한 것을 보고 그제서야 박 지성의 기술과 비범한 활동력을 믿게 되였다.

그런데 7형제 바위의 발파 작업에는 또 한 가지 난문제가 생기였다.

그것은 화약 취급자는 반드시 내무 기관에서 자격증을 얻어야 하는 데 박 지성은 아직 그 자격증을 못 맡았기 때문이다. 그 속을 알아보니 때마침 도 내무국에서 발파공들의 자격 검정 시험을 방금 실시하는 중이라고 한다. 이 말을 들은 박 지성은 불시로 시험을 보러 가겠다고 지도부에 제의를 하였다.

대대 지도부는 그의 제의를 승인하였다.

박 지성은 래일 길을 떠나기 전에 숙희를 만나고 싶었다. 그는 저녁에 찾아 가려고 생각하였는데 숙희 역시 그를 만나고 싶어서 찾던 중에 그들은 서로 만났다.

그러나 숙희가 박 지성을 만나려 한 것은 박 지성이와 같이 거저 만나 보고 싶어서 만나려는 것은 아니였다. 그는 요전 날 밤에 그와 단둘이 만났을 때 약속하였던 붉은 수첩을 그동안에 만든 것을 박 지성에게 선물로 주고 싶었던 것이다. 하긴 숙희도 그런 핑게로 박 지성을 만나보고 싶었는지는 모른다.

그때 벌써 박 지성은 먼저 올라와 기다리고 있다.

《래일 도 내무국으로 발파공 시험을 치르러 가신다구요?》

《그립니다.》

《언제 돌아 오시겠어요?》

숙희가 묻는 말에 박 지성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마 4,5 일간 걸릴 것 같습니다.》

《옛어요— 표지'감과 종이도 좋지 않아서 잘 만들지 못하였어요.》

숙희는 신문지에 싼 조고만 수첩 한 개를 끄내여 준다.

《붉은 수첩! 참 이건 귀중한 선물이군요…》

《뭘…잘되지 않았어요.》

《난 이 수첩을 잘 간직해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배우는 학습장을 삼고 혁명적 량심에 비최는 거울로 삼아서 자기의 행동을 검열하는 데 리용하려 합니다.》

《그래 주세요.》

전 숙희는 박 지성의 이 말이 만족스럽게 들리였다.

붉은 수첩은 우등'불 모임과 같이 비단 제 3 대대 뿐만 아니라 각 대대에서도 어느 대원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가지게 되였다. 그것은 친한 사이 끼리는 서로 만들어서 선물을 주기도 하였는 데 그 결과 붉은 수첩은 전 대원들에게 차차 전파되어 갔다.

《이것 때문에 만나려고 하셨나요?》

《네—약속을 지켜야 하잖아요.》

《뭘 그리 급한 일이라구요.》

《그래도…》

만나기 전에는 서로 할 말이 많을 것 같더니 정작 만나고 보니 무슨 말을 해야할 지 모르겠다. 그들은 들뛰는 가슴의 고동을 느끼며 한동안 침묵을 지키였다.

박 지성은 내심으로 전 숙희에게서 붉은 수첩의 선물을 받은 것이 무등 기뻤다.

그는 또 한 가지 숙희에 대한 인상이 깊게 되였다. 사실 붉은 수첩은 칼라 보다도 고상한 정신적 의미에서 그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박 지성은 자기도 모르게 차차 숙희에게 끌리는 무엇이 있었다. 지금까지 그는 이성에 대하여는 거의 무관심한 태도로 지나왔다. 일가 친척이 없는 고독한 그에게는 장래 문제를 누가 념려해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결혼 같은 것은 아직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는 나이를 먹어 갈 수록 차차 앞일을 타산하게 되였다. 그는 금년에 27세 였다. 언제까지 독신 생활을 할 것이 아닌만큼 30전에 결혼을 해야 하지 않을가 하는 로파심이 들기도 하였다. 한데 전 숙희를 친하게 된 후로부터 그는 남몰래 사랑의 싹을 티우게 되였다.

이튿날 아침에 박 지성은 신이 나서 휘파람을 불며 길을 떠났다. 그는 전에 없이 기분이 매우 좋았다. 마치 무슨 보물을 아무도 모르게 얻은 때와 같이 그는 흐뭇한 행복감을 느끼였다. 과연 숙희가 자기의 애인으로 되여 준다면 얼마나 좋을가? 그것은 다만 보물에 대일 것이 아니다. 만일 보물에 비긴다면 보물중에도 보물일 것이다. 왜냐 하면 그들의 결혼은 동지간에 성립되겠기 때문이다.

혁명을 위하여 위대한 리상을 품은 청춘 남녀들이 같은 일터에서 로동을 하며 또한 그들이 남다른 애정으로 서로 사랑할 것이 아니냐! 그들의 사랑이야 말로 정금과 같이 순결한 것으로서 고상한 생의 기쁨을 자아내게 할 것이다.

박 지성은 숙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만 나흘만에 돌아 왔다. 그런데 그의 말에 의하면 발파공 시험에 합격되여 자격증을 맡았다고 하며 돌아오는 길에는 평산, 신계, 신평 등지를 답사하여 12 톤의 불발탄을 채집하고 이미 뢰관 해제를 다 해 놓았다는 것과, 소관 리 인민 위원회 위원장의 증명서와 감사장까지 받아 왔다 하면서 그에 대한 일련의 문건들을 주섬주섬 끄내 놓는 것이였다. 그래 처음에는 모두다 의아한 시선을 그에게 던졌었다.

하나 그것은 사실이 였다. 정치 부대대장 이하 여러 사람들은 그제서야 감탄하기를 마지 않았다.

《박 동무는 정말 영웅이요.》

정치 부대대장 한 석천은 새 채비로 그의 손목을 잡고 흔들었다.

《과연 참 재간이 용한데요.》

하고 제 3 중대장은 리 인민 위원장의 감사장을 처들고 읽어보며 감탄하는 말을 한다.

사실 12 톤의 불발탄을 무사고로 뢰관 해제를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뢰관 해제의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자칫 잘못 하면 폭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폭발하면 그는 생명을 잃게 된다.

어떤 것은 뢰관에 녹이 쓸어서 뽑아 내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녹이 쓴 뢰관을 해제 할 때에는 폭발의 위험이 더욱더 많았다.

한데 박 지성의 불발탄 해제는 일거 량득의 리익이 되였다.

그것은 첫째로 미국놈들이 우리 인민들을 학살하고 도시와 농촌을 파괴하기 위하여 던진 폭탄을 평화적인 사회주의 건설에 리용하니 원쑤들에 대한 보복으로 될 것이며 둘째로는 불발탄을 제거하여 주니 부근 주민들의 생명에 위험을 느끼지않게 되었기 때문이 였다.

문제는 다만 그 해제 작업이 위험하여서 혹시 사고나 치지 않을가 념려하였었는데 박 지성은 그에 대해서는 자기의 기술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도 동무들이 간혹 안심이 안되여 그만두라고 권고 할라치면

《일 없이요, 나는 공병이 아닌 가요.》

하고 그는 다음과 같이 진중하게 말하였다.

《지금 나는 전투에서와 같이 공병의 역할을 할 따름이요, 전투원이 죽음을 겁내서야 되겠소. 전시에는 적들의 맹렬한 폭격과 포사격 밑에서도 그런 일을 했는데 어째 지금 평화 시기에 못한단 말이요? 나는 안전하게 해제 작업을 할 기술과 자신을 가지고 있는만큼 결코 실수는 하지 않을테니 안심하시요.》

이와 같은 그의 굳세인 의지를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교통성과 내무성에서도 마침내 박 지성의 불발탄 해제만은 허가를 해 주었다. 그후 박 지성은 계속 불발탄을 해제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돌격대원들은 그 동안에 수굴로만 하던 것을 국가에서는 콤프레샤와 공구를 보내 주어서 화약을 장약할 7형제 바위에다 크게 도갱을 여러 곳 뚫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분공 작업이 진행되는 중에 박 지성은 마침내 40 여 톤의 폭약을 각처에서 채집하여 왔다. 그는 트럭을 타고 멀리 평강, 철원 등지까지 가서 불발 폭탄을 실어 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제 2 회 발파를 앞두고 착암 공사를 다우치는데 당 중앙 위원회 2월 전원 회의에서 채택된 당의 축하 편지를 뜻 밖에 받게 되었다.

8. 감격한 모임

3월 1일 오전 10시—평산 역전 광장에서 지하리—평산간 청년 철도 건설자들의 성대한 모임이 있었다.

그것은 당 중앙 위원회에서 보내는 2월 전원 회의 축하 편지의 전달식을 거행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각 대대에서는 돌격대원들을 위시하여 각 대대 성원들 중에서 선발된 청년 건설자들이 해당 민청 위원장의 지휘하에 6천 여 명이 광장에로 모여 들었다.

물론 각 대대에서는 현장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대원들을 남겨두어서 조직적 분공을 시켰다.

정각 열 시가 되자 민청 중앙 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막이 열리였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선전 선동부장으로 부터 청년 철도 건설자들에게 보내온 당 중앙 위원회 2월 전원 회의 축하 편지의 전달 보고를 하자 만장은 열광적 박수로써 환호하였다.

그들은 편지의 매 구절을 들을 때마다 감격의 환호속에 가슴을 들뛰였다. 그중에도

《당신들은 청춘의 들끓는 정열과 용감성으로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려는 공산주의적 발기자의 영예를 빛나게 간직하고 있으며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는 조선 인민의 참다운 아들딸다웁게 슬기로운 기개를 시위하고 있다》하는 대문을 랑독할 때에는 장내 전체가 열광적인 박수와 구호를 웨치며 들끓어 오르는 감격적 장면을 이루었다.

청중은 모두다 긴장된 태세로 귀를 기울였다.

《당신들의 보람찬 일터는 애국주의와 불굴의 투지를 배양하여 심신을 단련할 뿐만 아니라 로동에서 기술을 배우며 련마하는 공산주의 학교이다. 당신들은 숭고한 로력 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 나아가서 공산주의 건설의 역군으로서 더욱 더 훌륭히 준비될 것이다.》

편지에는 모든 자재를 주선하여 주겠다는 특별한 배려와 《당의 의지로 사는 청년 혁신자로서, 당의 영예로운 전사로서 공사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더욱 더 분발하라!》

라는 격려의 말 씀이 씌여 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공화국 청년으로서의 무한한 영예감과 긍지감을 갖게 하였으며 그들을 충천의 기세로서 사기를 고무시켰다.

《조선 로동당 만세!》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 만세!》

편지의 랑독이 끝나자 청년 건설자들의 열렬한 토론이 있었다. 먼저 트레스트 민청 위원장 리 재훈을 비롯하여 여러 대원들의 토론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다 우리 당의 특별한 배려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자기의 책임을 원만히 수행하겠다는 새로운 결의를 다지었다.

다음으로 각 대대에서 많은 돌격대원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제 3대대에서는 박 지성과 녀성 대원을 대표하여서는 전 숙희가 출연하였다.

현제 박 지성은 청년 건설자들의 영예를 말한 후에 그 만큼 우리 청년들은 당과 인민 앞에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우리는 어떠한 난관과 애로가 있더라도 그것을 용감히 박차고 나감으로써 당의 붉은 전사로서,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로서 매 개인이 모두다 빛나는 로력적 성과를 거두어서 반드시 제일계단 공사를 기한전에 완수해야겠다고 열렬히 부르짖었다.

몇 동무의 토론이 있은 후 끝으로 정 숙희가 등단하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영광스럽게도 당의 축하 편지를 받은 무한한 감격과 다함없는 감사의 념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은 우리 청년 건설자들에게 〈공산주의 밭기자〉라는 가장 영예스러운 칭호를 안겨 주었습니다. 당은 우리의 일상 생활을 념려하여 물심량면으로 되는 모든 편의를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당의 배려에 의하여 사회적 지원이 날로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중앙을 위시한 각 대학, 전문학교와 각 도의 농촌 청년들을 응원대로 파견하여 주었으며 자재면에 있어서도 황철에서는 레루를, 자강도, 량강도에서는 침목을 별써 수송해 와서 우리들의 사기를 돋구어 주고 있습니다.

어데 그뿐입니까? 연도의 주민들은 초기에 아직 합숙을 짓기 전에는 숙소를 마련해 주었으며 도구를 빌려주는 등 제반 편리를 도모하여 주었습니다.

이와같은 사정은 김 일성 원수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있기 때문에—인민이 주권을 장악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청년 건설자들은 이 은혜를 자기 사업의 실천을 통하여 보답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앞에는 허다한 난관과 애로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떠한 난관이라도 돌파할 자신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불에 들어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도 녹지 않는 강철의 전사로—붉은 전사로 단련 육성되여서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나설 것이며, 혁명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도 애김 없이 바치겠다는 애국 지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다면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무엇이며 점령 못할 요새가 어데 있겠습니까? 그것은 현재 우리의 작업 실적이 웅변으로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하리—평산간 150리 철도 건설 공사는 오늘 현재로 거의 70%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 앞에 맹세한 4월 20일 기한전으로 우리들은 반드시 이 철도의 개통을 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 제 3대대에서는 가장 난공사로 되였던 7형제 바위를 마저 발파 하겠으며 조 옥희 영웅 칭호를 철교의 이름으로 붙이게 된 철교형 아치식 철교도 반드시 4월 20일 전으로 완공할 것을 다시금 맹세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우리 청년 건설자들에게 항상 두터운 배려를 돌려 주시는 당 중앙 위원회에 드리는 감사의 편지를 채택할 것을 제의합니다.》

정 숙희의 토론과 제의에 대하여 만장은 열렬한 박수로 환호하였다. 그들은 모두다 굳은 결의와 맹세를 새로이 다지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당 중앙 위원회에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이날 오후에 각 대대의 성원들은 사기가 충천하여 제각기 현장으로 돌아갔다.

제 3 대대 리 수복 영웅 돌격대원들은 돌아 오는 즉시 작업 현장에로 달려 나갔다. 그들은 7형제 바위를 이날로 발파할 것을 오는 도중에 토의 결정하였다. 그것은 장약만 할 수 있게 구멍을 뚫어 주면 발파 작업은 자기가 도맡아서 당장 하겠다는 박 지성의 확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돌격대원들은 우선 세개 바위를 발파할 구멍을 뚫기에 전력을 기울였다. 하긴 그들은 그러지 않아도 래일 쯤 발파를 하려고 하였던 차인데 이날 당의 축하 편지를 받은 감격과 기쁨을 참을 수 없어서 오늘로 앞당겨 하자는 돌격대장의 발기에 중론이 일치되였던 것이다.

착암공들은 분조를 나누어서 세 바위에 달라 붙었다. 그들은 아직 못다 뚫은 구멍을 제가끔 마저 뚫기 시작하였다. 제 3 대대에서도 돌격 대원들은 축하 편지 전달식에 다 참가하지 않고 남아 있던 대원들이 굴착 작업을 계속하였는데 이들과 교대하여 돌아온 대원들이 돌격전을 들이대었다.



해가 지기 전까지는 불과 몇 시간이 아니 남았다. 하나 그들은 일'손을 다우쳤다. 당의 편지에 고무된 그들은 뛰는 심장이 정열을 솟구치게 하여 정말로 바위가 녹아나는 것 처럼 착암기 끝에서는 불꽃이 튀였다.

에여라 차!
경사가 났네
당의 편지 받고
이만 일 못할가

힘껏 때려라!
쑥쑥 들어간다.
함푸레샤
빨리 돌아라!

이 발파 작업이
오늘 잘되면
7형제 바위가
비상천 한다네!

……………………

즉흥적으로 그들은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르며 한층 기세를 돋구었다.

그들은 세 개 바위에 하나씩 큰 구멍을 뚫는데 해질 무렵까지 끝내었다.

메질을 하는 사람은 추운 강'바람이 부는 데도 웃통을 벗어 부치고 땀을 뻘뻘 흘리였다. 이와 같이 함푸레샤와 수굴로 도갱 굴착을 완성하자 박 지성은 인차 장약 작업에 달라 붙었다.

장약을 끝내고 도화선에 불을 부치자 사람들은 모두 멀리 몸을 피하였다. 박 지성은 이번에도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대원들 중에는 혹시 어떨가하는 념려가 없지 않았다.

그들은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19분 동안을 지루하게 기다렸다.

그런데 그 시각이 돌아 오자 례외없이, 7선골에서는 굉장한 폭음과 함께 바위가 폭발되여 불'기둥처럼 솟아 올랐다.

《꽝! 꽝! 꽝!》

련거퍼 터지는 굉음은 첫 발파 때 보다도 더 요란하게 들리였다. 그것은 진동하는 폭발의 위력이 지축을 뒤흔드는 것 같았다.

돌격 대원들은 앞을 다투어 마라손 선수처럼 현장으로 뛰여 왔다.

파얼 바위는 완전히 없어지고 거기에는 바위가 뚫어져 나간 몽톡한 자리돌만 로반과 같이 깔려 있다.

《만세!》

소리가 모든 사람의 입에서 일제히 웨쳐 나왔다. 이날로 발파를 앞당긴 것은 순전히 그들이 당의 축하 편지를 받은 데서 사기가 고무되여 혁명적 열정을 발휘한 결과였다.

이와 같은 혁명적 기세는 조 옥희 영웅 돌격대에서도 나타났다.

교각 기초의 수중 굴착을 완전히 끝낸 후 부터 그들은 교각을 쌓아 올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첫 새벽에 일어나서 작업장으로 나갔다. 몇사람은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화토'불을 피우고 그외의 대원들은 밝는 날에 할 일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 그렇게 하면 교대로 나오는 동무들이 작업을 하기가 매우 편하고 손 쉬워서 로력적 성과를 올리게 된다. 더구나 추운날 식전에는 손이 곱아서 일'거리가 잘 잡히지 않는 때에 화토'불을 놓아 주는 것은 여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에게 새 힘을 솟구치게 하였다.

그들은 이와 같이 서로 작업을 도와주며 로동의 능률을 올리였다.

당의 축하 편지를 받은 후에 돌격 대원들의 앙양된 기세는 각 대대의 어데서나 들끓는 정열로써 작업을 추진시켰다. 그것은 제 2 대대의 10만산 톤넬 공사와 5만산의 발파 작업에서도 볼 수 있었다. 5만산을 굴진할 때 60 메터까지 굴을 파들어 가니 간드레'불이 별안간 꺼지며 대원들은 숨이 탁 막혀서 더는 일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통풍이 잘되지 않아서 산소가 희박하게 된 때문이 였다.

그때 돌격 대장 정 흥권은 이렇게 웨쳤다.

《동무들! 솔가지를 굴속에다 처넣읍시다. 솔'잎은 산소를 풍기여서 숨을 통하게 하는거요!》

그의 말이 떨어지자 돌격 대원들은 만세를 부르며 산 우로 치닫아서 솔가지를 꺾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그들의 만세 소리는 혁명가로 변하였다.

………

나가자! 판가리 싸움에
나가자—유격전으로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

그때 돌격 대장 정 흥권은 솔가지를 가슴에 안고 남먼저 굴 속으로 뛰여 들어가며

《동무들, 들어 갑시다.》하고 큰 소리로 웨쳤다.

돌격대원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저마다 가슴에 안은 솔가지를 굴속 막장에 깔면서 들어 갔다. 그리고 그들은 굴진 작업을 다시 계속하였다. 과연 그들의 숨'결은 한결 부드러워졌다. 마침내 그들은 5만산을 정복하였으며 그 속에다 화약을 장약하여 단번에 대발파를 하는데 성공하였다.

7 형제 바위의 나머지 바위들은 3월 17일에 발파하였다. 7형제 바위의 이와 같은 발파 성공은 보수주의와 미신에 대한 《신비》성까지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

9. 추진출신 (推陳出新)

고 국경은 그전에 인민 군대에서 복무하다가 제대된 사람이다.

군대에 있을 때에도 그는 관료주의적 작풍이 없지 않아서 당적 비판을 받은 일이 있다.

제대가 된 후에 그는 함흥 철도 관리국 제 1부장으로 배치를 받았다. 그가 이곳 현장에 와서 사업하는 중에 나타난 결함은 다른 무엇보다도 군중 관점이 서지 않은 것이였다.

그는 청년들의 힘을 믿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자기의 협소한 경험만 내세우며 밑으로부터 발기되는 하부 일'군들의 의견을 잘 접수하지 않으려 하였기 때문에 앙양된 대중적 창발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였다.

고 국경은 거의 두어달 동안이나 이곳에 와 있었지만 대대장으로서의 사업 보장을 위하여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다.

그는 이곳 현장에 도착한 후 적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행동하였다.

그가 현장 지도를 한다는 것은 제복 밑에 가죽 장화를 신고 나와서 시찰식으로 한 바퀴를 휘 돌아보는 것이 고작이 였다. 사무실에 있을 때에도 그는 틀만 차리고 앉아서 개별적으로 어느 부장 오너라! 어느 중대장 오너라…하고 불러다가 한 두 마디씩 들어보면 그만이였다.

그는 사업 계획도 없이 거저 주먹 구구로 생각 나면 하였고, 자기 마음 대로 뜯어 고치기가 일수여서 일을 더욱 복잡하게만 만들어 주었다.

그의 사무실에는 녀자 서기를 갖다 앉히고 그 녀동무에게 직인까지 맡겨 두었다. 그래서 대대장 사무실에 들어서면 우선 분 냄새와 크림 냄새가 물큰 떠올랐다.

그가 이곳 현장에 도착한 직후에 중대장들이 대원들의 합숙소와 공동 식당을 지어야겠다고 제의하였을 때 끝내 반대하였다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초기에 현장 가까이 지었더라면 대원들이 왕래하는데 얼마나 편리하였겠으며 작업상 능률을 내였겠는가! 한데 그는 5일간이면 지을 것을 끝내 반대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대대장이 모르게스리 먼 장소에다 지었다. 집을 지은 뒤에 그 집을 슬그머니 보였드니만

《그만 하면 괜찮소,》

하고 그때는 책망을 하지않았다든가! 그의 사업 작풍은 이와 같이 형식적이요 무계획적이였다.

화약고를 짓는 데도 고 국경의 반대로 세 번이나 뜯어 옮기였다. 화약고는 위험한 것이므로 인가가 가까워서는 아니된다. 그렇다고 작업장에서 너무 멀어도 운반이 곤난하므로 기술적 타산을 잘 한 후 애당초에 적당한 장소를 골랐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건 쥐뿔도 모르고 앉아서 자기의 기분 대로 이래라 저래라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첫째는 기일을 보장하지 못하였고, 쓸데 없는 반복 작업으로 로력만 랑비하게 하였다.

그보다도 엄중한 것은 부로끄에 소용되는 자갈을 운반하는 문제였다. 부재 공장의 장소는 강 이편에 있고 자갈은 강을 건너 가서 실어 와야 하는만큼 제때에 소용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자갈을 미리 실어다 둘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고 국경은 자갈을 실은 트럭을 그리 급하지도 않은 성토 작업장에로 자꾸만 돌리라고 하여 제 1중대장 리 종호의 애를 먹였다.

현장의 실정은 선발대로 온 리 종호 중대장이 더 잘 안다. 그래 그는 사업의 순서를 따라서 계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라치면 고 국경 대대장은 덮어놓고 열넉량금으로 반대 의견만 내세웠다.

당 중앙에서는 철도 건설에서 구조물 공사를 선행시키고 구조물 건설에서는 부재 생산을 선행시키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여 왔다. 그런데 고 국경은 자동차를 부재 생산이나 구조물(철교)공사에 돌리지 않고 토공 작업에만 전용하게 하였다. 심지어 그는 로력까지 떼내여서 성토 작업에로 돌리였다.

제 1중대장 리 종호는 그때 대대장을 찾아 가서 자동차를 구조물 공사에 돌려 달라고 아무리 공사의 선후차를 따져서 알아 듣도록 설명하고 사정을 하여도 《대대의 실정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오. 동무는 내게다 무슨 지시를 하려는거요? 누가 구조물 공사를 선행시키는 것이 중요한 줄을 몰라서 하는 말인가, 지금은 겨울이라 부재 생산을 할 수 없으니 말이지》 하고 도리여 큰소리를 쳤다.

한번은 부재 생산에 필요한 자갈을 쳐서 담을《체》가 없어서 곤난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더니만

《동무! 그런 문제까지 대대에 제기하면 어떻게 한단 말이요. 대중의 창발성을 발휘시켜서 자체로 해결하란 말야! 싸리를 베여다가 만들면 되지 않소.》

하고 그런 때는 격에 맞지 않는 대중의 창발성을 운운하였다.

제 1중대에서는 벌써 대원들의 열성적 활동으로 싸리를 베여다가 체를 만들어 쓰지가 오래였다. 하나 그것 만으로는 부족하여 부재 생산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고 국경은 사무실에만 들여 박혀서 하부의 실정은 전혀 모를 뿐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그러면서도 아는 체는 저 혼자 하였다. 그의 이러한 형식주의적, 보수주의적 사업 작풍은 하부의 요구를 제때에 해결해 주지 못하였다.

침교천 교량의 교각 기초 굴착 문제만 해도 그러하다. 제 1중대장은 땅이 얼고 내'물이 적을때에 굴착을해야 되겠으니 뽐프와 기타 기자재를 속히 주선해야되겠다고 수삼차 문제를 제기하였었건만 그때마다 그는 무슨 말로 대답하였던가!

《글쎄 트레스트에서 보내주지 않는 뽐프와 전동기를 어데서 가져온단 말이요. 자재가 올때 까지 기다리오.》

이렇게 그는 초기 곤난한 시기에 소용되는 공구를 상부에다만 의존하고 자체로 해결할 것까지도 무관심하였다.

정치 부대대장 한 석천은 고 국경의 사업 작풍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여러번 충고를 주었다. 그러나 그는 말로는 접수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행동으로는 시정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7형제 바위의 첫 발파를 성공하던 날 저녁에 제 3대대에서는 당 총회를 소집하였었다.

회의에서는 사업 총화를 짓고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퇴치해야 할 문제에 대하여 정치 부대대장 한 석천이 보고를 하였다. 그는 자기의 보고에서 오늘 우리 나라는 혁명의 대고조를 이루어서 모두다 천리마의 기세로 내닫고 있는데 《공산주의적 발기자》라는 당이 준 고귀한 영예를 간직하고 여기 철도 건설장으로 선발되어 온 우리들에게서 보수주의와 소극성이 발로되였다는 것은 매우 엄중한 사실이라고 지적한 다음 그것이 대중 속에서가 아니라 지도적 위치에 있는 간부 중에서 생겼다는 것은 더욱 엄중한 일이라고 그는 대대장 고 국경의 보수주의적 사업 작풍의 실례를 구체적으로 들어 가면서 지적하였다.

우리 사회주의 청년 건설자들은 천리마를 타고 질풍과 같이 내닫고 있다. 그들은 령하 20—30도의 혹한에서도 언 강물 속에 뛰여 들어서 수중 굴착 작업을 하였으며 공구가 부족한 것은 자체로 해결하여 가며 불철 주야 암벽을 까내는 수굴 작업을 하였다. 이런 것이 곧 천리마의 진군이며 붉은 편지를 실천하는 길이다. 그런데 그들의 창발성을 조직 지도하고 고무 추동하여 줄 대신 대대장 고 국경은 자기의 협소한 주관주의에 사로 잡혀서 청년들의 전진을 가로막는 제동기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보수주의와 소극성의 표현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의 보수주의는 관료주의, 형식주의, 개인 영웅주의와 결합되여 있기 때문에 후과는 더욱 엄중하다고 지적하고 그것은 7형제 바위의 발파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고 말하였다.

보고자의 뒤를 이어서 기사장 부 기순을 비롯하여 여러 동무들이 토론에 참가 하였다. 그들은 정치 부대대장의 보고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토론을 하였다.

기사장 부 기순은 대대장 고 국경의 완고한 보수주의와 소극성 그의 관료주의적 지도 작풍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도 소극성에 빠졌다고 하면서 7형제 바위 발파가 3일간이나 늦어진 큰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자아 비판을 하였다. 제 1중대장 리 종호는 그의 토론에서 고 국경의 보수주의에 대하여 투쟁을 하지 못하고 도리여 자기는 보신주의를 범하여 소극적으로 그날 그날을 무사히 지내려고만 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하지 못하고 보수주의와 소극성에 질질끌려 갔다고 역시 자아 비판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토론자들과 한결같이 대대장 고 국경은 현재의 작풍을 시정하지 못하면 같이 사업하기가 곤난하다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들은 고 국경에게 동지적 립장에서 낡은 사업 작풍을 속히 시정하도록 간곡한 충고를 주었다.

고 국경은 다른 때보다도 그날 밤 당 회의에서는 비교적 솔직한 자아 비판을 하였다. 그후 상부의 소환으로 고 국경은 갈려 가고 그 후임으로 한 충발 대대장이 새로 부임하였다.

그날 한 충발 대대장은 오는 즉시로 제 3 중대장, 민청 위원장들과 같이 7형제 바위 근처의 토반 공사장을 돌아 보려고 나왔다.

마침 그때는 휴식 시간이 였다. 대원들은 쉬는 참에 새끼를 꼬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청년 남녀들이 아코데온에 맞추어서 옹헤야의 군중 무용을 하였다.

새로 온 대대장은 청년들이 앉은 곳으로 가서 자기도 새끼를 꼬았다. 그러면서 그는 말을 걸기를

《동무들은 가래질을 잘 할 줄 아오, 나랑 같이 해봅시다》하고 청년 대원들과 한통에 싸여서 소탈하게 담화를 하였다. 그리고 그는 작업에 대한 것을 격식 대로 가르쳐 주기도 하였다. 대원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다. 혹시 트레스트에서 온 이가 아니면 성에서 왔는가부다고 생각하였지 신임 대대장인 줄은 아무도 몰랐다. 대대 민청 위원장은 빙글빙글 웃고만 있었다.

《그래 동무들은 소원이 뭐요?》한 청년을 돌아 보며 그는 이렇게 물었다.

《저는 푸른 맹증을 붉은 당증과 바꾸는게 소원입니다》그 청년이 활발하게 대답한다.

《또 동무는?》

이편으로 앉은 이마가 숙붙은 나어린 청년에게 물어 보았다. 그는 곡산에서 온 농촌 청년이였다.

《저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소원이예요.》

《어느 대학?》

《농업 대학이 예요.》

《음—동무들이 일을 잘하면 물론 소원대로 다 될 수 있소. 당원도 될 수가 있고 대학에도 들어 갈 수 있고 간부로도 될 수 있고—그밖에 모든 것을… 그러니 동무들은 여기서 기초를 잘 닦아야 되오. 공산주의 학교에서… 알겠소? 이 건설장은 2년제의 공산주의 학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위생 지도원 박 인옥이 어깨에 약가방을 메고 큰 물'주전자와 빈 공기를 들고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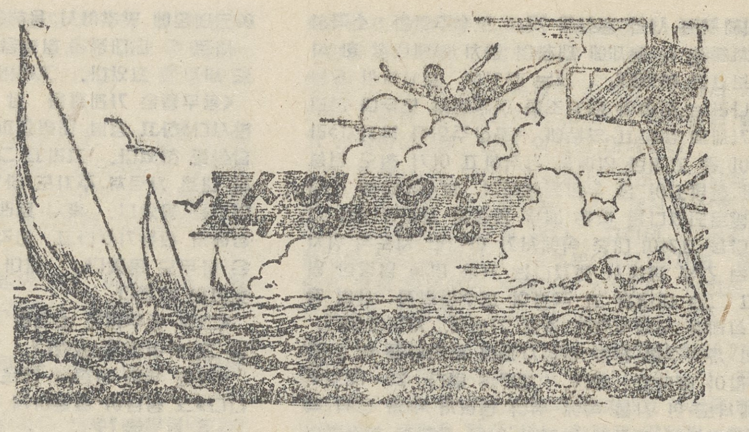
(다음 호에 계속)

우리 나라의 도, 시, 군 (구역), 읍, 리(동, 로동자구)의 수는 얼마인가?

우리 나라에는 11 개 도, 14 개 시와 170 개 군, 6개 구역이 있으며 그 밑에 170 개의 읍과 3, 706 개의 리, 92 개의 로동자구와 359 개의 동이 있다.

(1958년 10월 1일 현재)

해양 체육



(一) 수영 운동의 기초 훈련의 각종 형식과 요령들

최 능 환

물에 익숙시키기 위한 방법

ㄱ. 수영 운동을 배우는 초보자들은 물 안에 들어 가면서 너무 깊은 곳을 택해서는 안된다. 즉 물 깊이가 허리 정도의 장소에서 걸어 다니며 뛰여 다니면서 련습하여야 한다. 이때 물의 저항을 극복하는 동시에 수온에 대한 자극과 이에 따르는 수압 관계에 대하여 익숙하여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볼 또는 기타 유희 도구를 리용하여 간단한 유희를 조직하여 물에 익숙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ㄴ. 수영 운동에서는 호흡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호흡 훈련은 전신을 물 속에 잠구고 무릎 굽혀 세운 자세로 실시하여야 한다. 처음에는 물 우에서 호흡하며 다음에는 물 우에서 들이쉬고 물 안에서 내쉰다. 이 때에 입으로 호흡하게 된다. 처음 련습시 물을 좀 먹을 수 있으나 이를 계속 실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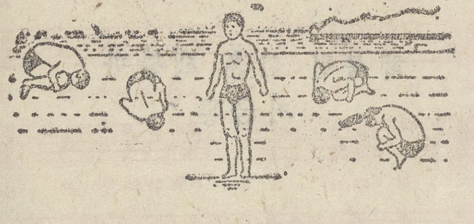


ㄷ. 수영 운동을 배우려는 초보자들은 잠수 방법도 배워야 한다. 잠수는 초보자들에게 물에 대한 자신을 얻게 하며 단련시키는 방법이다. 또한 잠수 훈련은 물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게 하며 수영 운동의 훈련을 촉진시킨다.

(二) 초보적 련습 단계로서 물에 뜨는 방법

수영 운동 련습시에 숨을 힘껏 들이쉬고 물 속에 들어가면 몸체가 물 우에 뜨게 된다. 동시에 이와 반대로 하면 가라앉는다. 이 요령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요령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우선 숨을 힘껏 들이쉬고 무릎을 굽혀 두 팔로 안는다. 머리는 앞으로 숙이고 몸 자세는 동그랗게 한다. 이렇게 하면 전신이 차츰 뜨게 된다. 잔등이 수면에 나타났을 때에 숨을 내 쉰다. 다음에는 몸체가 물에 가라 앉는다. 이를 계속하여 뜨는 요령을 습득하여야 한다. 또한 널판자를 사용하거나 구명환을 사용하여 다리 동작과 배에 힘을 주는 련습과 함께 호흡 조절도 습득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련습 방법을 적용하여 인내성 있게 꾸준히 련습한다면 물에 익숙해 지며 헤염칠 수 있게 된다.



(三) 헤염 치기 련습 방법

물에 뜨는 기능이 습득되면 헤염 치기 요령을 습득하여야 한다. 땅'바닥에서 처음에는 한 다리로 다음에는 두 다리로 무릎을 굽혀 펴는 자세로써 뒤로 찬다. 이 순간에 두 팔을 우로 곧바로 펴며 머리는 곧바로 편 두 팔 사이에 바로 둔다. 전진의 자세는 물을 타서 미끄러지는 듯이 취하여야 하며 허리는 곧바로 펴고 안정된 자세로 몸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정된 자세로 뜨게 하려면 아래'배에 힘을 주며 동시에 좌우로 동요시키지 않기 위하여서는 허리와 배에 힘을 주도록 주의하여 련습하여야 한다.

(四) 수영 운동의 기본 동작

ㄱ. 몸의 자세

가슴을 펴고 얼굴을 곧바로 하고 자연스러운 자세로 물을 타서 미끄러지는 듯한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가 구부러져서는 안되며, 항상 안정된 자세로 몸체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ㄴ. 다리 동작

수영 운동에서 전진력은 주로 다리의 힘에 의존한다. 다리의 동작은 량 무릎을 밖으로 굽히며 다리에 힘을 주지 말고 가두어 들이고 물을 차 낼 때에 무릎을 펴고 동시에 힘껏 차 내며 두 다리를 서로 모아야 한다. 이때 물의 저항을 받지 않고 차 내는 요령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초적 련습을 진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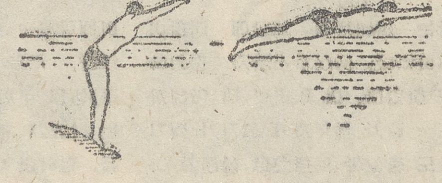
ㄷ. 팔의 동작

두 팔을 물 속에 약 7~8cm 깊이에 두고 자연스럽게 펴기와 모으기를 하여야 한다. 두 팔은 손 끝을 충분히 펴서 앞으로 펴게 한다. 편 팔의 손'바닥은 서로 밖을 향하게 하며 물을 포착한 다음 물을 누르는 듯이 팔 전체의 힘으로 물을 옆, 아래, 뒤로 끌어서 어깨선까지 가져 와야 한다. 어깨선까지 가져 온 팔은 활꿈치를 앞에 모아 굽히며 손'바닥이 가슴에까지 모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펴기와 모으기를 계속 련거퍼 하는 것이 중요하다.

ㄹ. 호흡법

수영 운동에서 호흡은 륙상 경기시의 호흡과는 전혀 다르다. 이 호흡을 정상화 하기 위하여서는 상당한 련습이 필요하다.

호흡은 각 수영법에 의하여 팔 다리의 동작과 잘 맞게 하여야 하며 흡기는 수면 밖에서 입으로 하여야 하며 호기는 물 속에서 서서히 입으로 내 보내야 한다.



※ 몸의 자세, 팔 다리 및 호흡의 호상 조화에 대하여

수영 운동에서는 몸의 자세, 다리 동작, 팔의 동작 및 호흡법 등 네 가지의 조화적 동작에서 완성된다. 이 조화적 동작은 제정된 방법에 의해서 인내성 있는 훈련을 거쳐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청년 오락실

행복한 신혼 생활과 저금통

두 신혼 부부는 각각 자기의 개인용 저금통을 가지고 있다. 지난번에 저금한 돈으로 시계를 산 그들은 재미를 보아 신부는 재봉침, 신랑은 라디오를 사기로 결심하고 경쟁을 체결하여 살림의 여유 돈을 저금하였다. 어느날 그들은 1차 5개년 계획을 앞당겨 8. 15 전으로 완수하므로서 공장에서 막대한 상금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 즐거운 날을 계기로 저금통을 열었다. 그런데 신랑의 돈이 신부의 돈보다 1전 짜리 한 개가 더 많을 뿐, 신통히 서로 꼭같은 돈들이였다. 두 신혼 부부는 수부룩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 두 사람의 것을 한데 합하여 개 수로 헤여본즉 19개였고, 계산해 보니 333원 33전이였다. 그들은 너무도 신기한 일이여서 배를 그러안고 웃어댔다. 며칠 후 신부는 재봉침에 남편의 옷을 물리고 신랑은 라디오를 틀게 되였다. 그리하여 신혼 부부의 행복에 겨운 생활은 더욱 더 윤택하여졌다.

우리들은 이 두 신혼 부부의 행복한 생활을 축하하면서 그들의 저금통에 각각 서로 다른 종류의 돈들이 몇 개씩 들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맞추어 봅시다.

(현) (상) (문) (제)

이것은 어느 작품의 한 구절인가?

(1)

—나는 여태까지 세상에 대하여 충실하였다. 어디까지든지 충실하려고 하였다. 내 어머니, 내 안해까지도… 뼈가 부서지고 고기가 찢기더라도 충실한 로력으로 살려고 하였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속였다. 우리의 충실을 받지 않았다. 도리어 충실한 우리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학대하였다. 우리는 여태까지 속아 살았다. 포악하고 허위스럽고 요사한 무리를 용납하고 옹호하는 세상인 것을 참으로 몰랐다.

………

김 군! 나는 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나부터 살리려고 한다. 이때까지는 최면술에 걸린 송장이였다. 제가 죽은 송장으로 남(식구)들을 어찌 살리랴. 그리려면 나는 나에게 최면술을 걸려는 무리들, 험악한 이 공기의 원류를 처부시려고 하는 것이다.

(2)

그러나 진달래 꽃은
오려는 봄의 모양을 머리 속에 그리면서
찬바람 오고 가는 산 허리에서
오히려 웃으며 말할 것이외다.
《오래 오래 피는 것이 꽃이 아니라
봄철을 먼저 아는 것이 정말 꽃이라고.》

7호 현상 문제 해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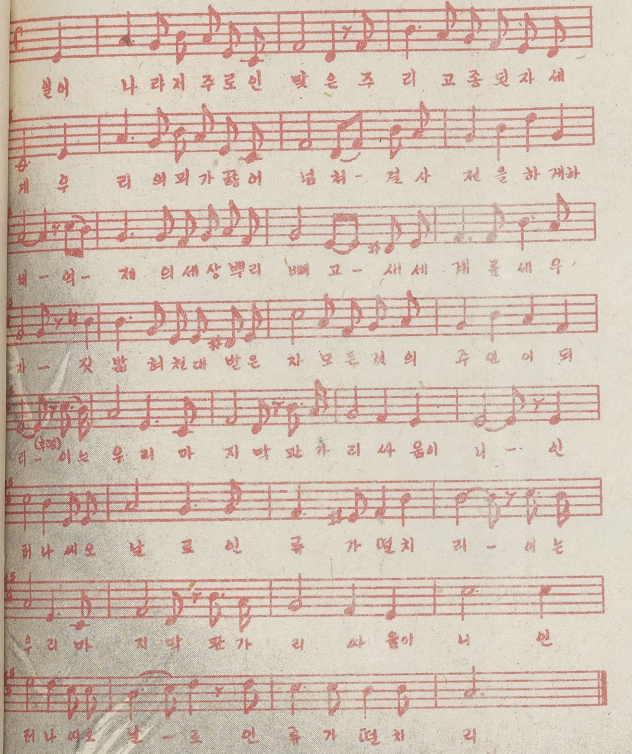
(1) 조 기천 작 장편 서사시 《생의 노래》(2) 《혁명을 위하여》(1)에 수록된 《강철의 투사》.

당 선 자 들

평남도— 손 락류
평북도— 리 재도
함남도— 리 영춘
강원도— 고 영진
황남도— 정 연건
개성시— 리 경숙
조선 인민군— 최 형옥

인터나씨오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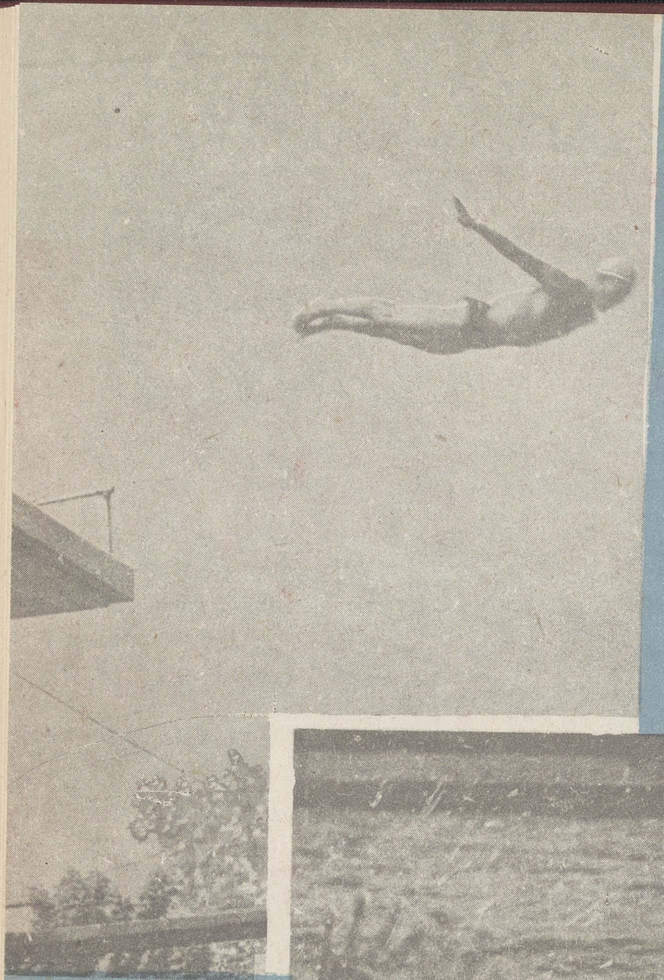
에. 뽀찌에 시
삐. 데게이떼르 곡



2. 하느님도 임금도 영웅도 우리를 구제 못하리
우리는 다만 제손으로 해방을 가져오리라
거세인 솜씨로 압박부시고 제것을 찾자면
풀무를 불며 용감히 두다려라 쇠가 단김에
(후 렴)

3. 우리는 오직 전세계의 위대한 로력의 군대
땅덩어리는 우리의 것이니 기생충에게는 없으리
개무리와 도살자에게는 큰벼락 쏟아져도
우리의 머리우에는 찬란한 태양이 비치리
(후 렴)





≪청년들이 바다의 보물을 캐내는 장
일을 즐겨하도록 교양하며 바다에 나가
륙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유 자재로 활
수 있게끔 단련시켜야 합니다.≫ (김 일



